

+ 입법정보

계간 세종 의정

| 봄호 |

2025년
통권 제43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SEJONG CITY COUNCIL

소통과 공감, 신뢰받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노적성해(露積成海)’의 마음 행정수도 완성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SEJONG CITY COUNCIL

으로 40만 세종시민과 함께
이루어내겠습니다.





신년사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희망의 세종, 2025년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새로운 희망으로 미래를 더 크게 열어갈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길 바라며, 푸른 뱀의 해처럼
지혜롭게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만들어 가는 희망찬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지난해, 시민 여러분의 힘으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수호하며,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는 것을 다시금 증명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시민들께서 위임해 주신 소중한 권한을 오직 시민들을 위해서만 사용하며,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2025년, 시민의 삶을 가장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고금리와 고물가,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시민 여러분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며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일자리 창출과 청년 지원을 통해 활기찬 세종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또한, 행정수도 완성의 길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국회세종의사당과 세종지방법원 설립,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를 앞당기기 위해 적극 노력함은 물론, 저출생과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도시로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겠습니다. 충청광역연합이 출범한 만큼 협력을 강화해 충청권 상생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세종시의 미래를 꿈꾸며, 꼼꼼히 준비하겠습니다.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를 차질 없이 준비해 행정수도 세종과 충청권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고, 충청권 메가시티로의 발전을 위한 발판으로 삼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꿈꾸고 그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크게 귀 기울이고 보이지 않는 곳까지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누구도 소외됨 없는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에 노력하며, 시민 여러분께 더욱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겠습니다.

2025년에도 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늘 그래왔던 것처럼 시민만 바라보며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임채성

목차

+ 입법정보

계간 세종의정

[봄호]



표지 이야기

그 어떤 현학적인 조어造語도 필요 없이, 단 한 음절로 형용할 수 있는 '봄'이다. 이번 호 표지에는 우리나라 고유종이자 봄의 빛을 담백 지닌 개나리를 담았다. 이들은 시작의 계절이 당도하면 짧은 꽃자루들을 군집해 노란 울타리로 엮는다. 못 개나리를 떠올릴 때면 한 송이의 꽃이 아닌, 어느 눈부신 길이 떠오르는 이유다. 군계일학과 같은 압도적인 유일함이 아닌, 평범함의 연대가 개나리의 정체성을 피워낸다. 개나리의 만개로 "세상은 특출난 영웅이 아닌 평범한 시민이 바꾸어 나간다"는 어느 오래된 격언을 다시금 떠올려보며 창문을 열고 봄을 들일 준비를 한다.



QR코드를 스캔하시면
계간 <세종의정>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발행일 2025년 3월 18일

발행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행인 임채성 의장

제작부서 홍보기획팀

04 신년사

08 기획특집



12 의정포커스



16 결의안

19 주요안건 처리현황

28 청소년 의회교실 소감문 수상작

36 의회인터뷰



48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소식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교육안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추진 특별위원회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59 5분 자유발언

67 긴급현안질문

68 시정질문

69 독자투고

70 의정주요뉴스



71 입법정보

I 생활법령

II 주요입법동향

III 법령해석사례

IV 최근시행법령

V 타 지자체 최근 제개정 자치법규

86 의회홍보채널안내



충청광역연합의회, 세종시의회로 들여다보기



지난해 12월, 대한민국 최초로 충청광역연합 의회가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일명 ‘초광역의회’. 2022년 1월 특별 지자체의 설치와 운영 근거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된 후 처음 출범한 단체로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사명에 응답하기 위해 대전-세종-충북-충남 4개 시도가 협력해 만든 특별지자체(이하 특자체)다. 의장 및 부의장(의장단 3명), 의원정수 16명의 구성원 비율은 4개 의회로 균등 배분했으며, 의원 임기는 2년으로 정해졌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는 유인호 의원이 부의장으로 선출됐으며, 초광역건설환경위원회에 김광운 위원장, 박란희 위원, 초광역행정산업위원회에 유인호, 김현미 위원이 충청권의 다양한 현안을 해결할 지혜를 모으기 위해 동참하게 되었다.

이들은 앞으로 각 지자체가 협력하여 해결할 공동의 사안이나 목표가 있을 경우 긴밀하게 소통하며 광역 사무를 처리하게 된다. 중앙정부의 지원, 서로의 상생발전, 정치적, 지역적 이해관계의 조율 등 산적인 과제도 많지만, 정당과 지역의 경계를 허물고 하나로 나아갈 희망을 바라보고 있다. 첫 초광역의회, 그 면면을 세종시의회의 목소리로 열어보자.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국민적 염원 담아낼 것

충청광역연합의회
유인호 부의장,
초광역행정산업위원



국가적으로 인구소멸이 가속화되고 유무형의 자원들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일극화 현상 속에서 국가균형발전의 요구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국토 중심에 위치한 충청권이 가진 장점을 활용해 미래의 혁신성장 거점과 공동 상생할 수 있는 자립적 경제기반을 마련해야 하고 동반성장 해야 하는 과제에 당면해 있습니다. 이 같은 시대적 요구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초석을 만들어야 하는 부의장이라는 무거운 중책을 맡게 되어 각오가 새롭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은 가는 새로운 시도이고, 시작 단계이다 보니 여러 가지 다듬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새로운 제도에 대한 보완들도 필요하고 550만 시도민의 염원과 국민적 관심에 대한 성과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충청광역연합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인지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개 시도 광역의회 의원님들과 협업하여 필요한 재정도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시작이기는 하지만 4개 시도의 분담금만으로 운영되는 한계 또한 극복해야 합니다. 지난 2025년 2월 17일 송재봉 국회의원이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는 ‘지방교부세법 일

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지방교부세를 받을 수 있도록 정비하는 법률안을 발의한 것처럼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충청광역연합회의의 역할과 성과가 도출되려면 무엇보다도 정부의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국민적 염원을 담아 낼 수 있도록 광역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
**초광역의회,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 간의
소통 창구로
거듭나길**

**충청광역연합회의
김광운**
초광역건설환경위원장



초광역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초광역의회에 동참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초광역의회의 출범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의 지원확보, 지자체 간 상생발전 등 여러 우려에 대해 저 또한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초광역의회 의원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건설 환경 분야는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과 밀접하게 관련된 중요한 분야입니다. 초광역의회에서 건설 환경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초광역의회는 여러 지자체가 함께 협력하여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모델입니다. 이러한 모델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각 지자체의 상호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초광역의회 위원장으로서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 간의 소통 창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초광역의회가 지역 발전의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초광역의회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초광역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초광역의회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지역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새로운 지방시대,
성공적인 중정시대를
위해**

**충청광역연합회의
박란희**
초광역건설환경위원



충청권 4개 시도가 하나로 모여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이 역사적인 순간에 함께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충청광역연합회의 의원으로 활동하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의회의 본래 역할인 정책 심의와 감시에 충실하며, 지역 간 갈등을 조정하고 조화로움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충청광역연합회의는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고,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입니다. 이는 충청권이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하고, 지역이 주도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교통·산업·환경·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행정 경계를 넘어 시·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연합회의의 출범 과정에서 의장단 구성과 관련된 논란이 발생하면서 초반부터 상호 신뢰가 흔들리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충청권이 하나 되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고, 시·도민 모두가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청광역연합회의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초광역 협력의 성공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초광역의회, 지역 현안 공유와 협력의 장 되어야!



**충청광역연합의회
김현미**
초광역행정산업위원

지방균형발전의 새로운 시도를 도모할 초광역의회에 동참하게 돼서 뜻깊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립니다. 개척가의 마음으로 이전에는 없던, 하지만 세상에 꼭 필요한 길을 모색하는 여정에 엄중한 책임감과 굳건한 사명감으로 임할 것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초광역의회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와 별개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협력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가야 하는 중요한 기구라고 생각합니다. 별개의 지역이 아닌 '충청권'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미래를 맞이할 날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현재 초광역의회 관련 행정·재정적 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로, 지방의회법 제정 등 법·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체계적인 운영 방안을 구축해 초광역협력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행정산업위원회는 개별 지자체의 요구를 단순히 전달하는 창구가 아니라, 각 지역이 가진 문제를 공유하고 공동사업을 발굴하는 협력의 장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세종시에는 없는 타지역의 인프라를 연계해 활용하면 오히려 상생 효과를 통해 타시도는 물론 세종시의 강점 또한 더욱 극대화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초광역행정산업위원회 위원으로서 충청권 4개 시도의 상생발전을 위해 책임감 있게 활동에 임할 것이며,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부단히 전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초광역의회는 광역 교통망 정비, 산업 연계 강화 등 초광역적 차원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유일하다는 초광역의회의 고유성과 특수성을 바탕으로, 지역균형발전을 대표해 많은 분야에서 첫 시도를 시작한다는 상징성을 되새기며 세종시의회와 함께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FOCUS 1

제94회 정례회 폐회 교육청 2025년도 예산안 등 총 8개 안건 처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024년 11월 11일 제94회 정례회를 개최하고 이날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2월 16일까지 36일간 회기를 진행했다.

임채성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최근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를 위해 대평동에 건립하려던 실내체육관과 수영장 공사가 네 번의 입찰 끝에 무산되었다”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충청권 공동 개최의 의미를 되새기고 행정수도로써의 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대회 개최까지 남은 약 1,000일의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 의장은 “집행부가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의 의무지출 비율이 전년 대비 8.1% 증가함에 따라 기존 사업을 정리하거나 축소해야 신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 시민들의 삶과 밀접하고 꼭 필요한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여미전·최원석·김현옥·홍나영·안신일 의원 등 총 5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시정 및 교육행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장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는 등 총 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어 세종시의회는 2024년 11월 12일과 13일 양일간 제2차 및 제3차 본회의를 열어 5분 자유발언과 시정 및 교육행정질문을 진행했다.

이어 2024년 12월 16일 제9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어 교육청의 2025년도 예산안 등 총 8개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열린 제5차 본회의에서는 김현옥·상병현·안신일·박란희·최원석·김광운 의원 등 총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또한 상병현 의원은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민간위탁 수탁기관의 성과평가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후, 민간위탁 운영과 관리 제도의 개선을 제언했다.

아울러 교육청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대통령 직무 정지에 따른 국가적 위기 대응을 통한 국정운영 정상화 촉구 결의안’ 등 총 8개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이날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였으나 예산 금액 증가에 대해 단체장이 부동의 함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2024년 12월 26일까지 기간을 정하여 재심사를 요구하고 36일간 이어진 제94회 정례회 회기를 마무리했다.

제95회 임시회,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결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회는 2024년 12월 24일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처리를 위한 제95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는 같은 달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재심사를 완료함에 따라 개최됐다.

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95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총 4개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임채성 의장은 이날 한 해 회기를 마무리하는 폐회사에서 “2025년도 예산이 뒤늦게 확정되면서 시민 여러분께 큰 우려를 끼쳐드렸다”며, “예산 확정이 지연된 과정은 의회와 집행부가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심도 있는 협의와 토론을 진행한 결과

임을 너그럽이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어 임 의장은 “올해 세종시의회와 집행부는 시의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하여 크고 작은 성과를 이뤄냈다”며, “내년에도 세종시의회는 시민만을 바라보며 시민과 함께 행정수도로 나아가는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제96회 임시회, 14일간 회기 끝에 올해 첫 임시회 마무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025년 2월 4일 제96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이날 제1차 본회의를 열어 14일까지 11일간 올해 첫 회기를 시작했다.

임채성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세종시와 시민을 위한 일에 집행부와 함께 힘을 모으겠다”며, “조례와 예산 등 의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통해 적극 지원하면서도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의 본분 역시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임 의장은 “우리 각자의 노력이 하나로 모이고 서로 조화를 이룬다면 더 큰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서로 격려하고 협력하는 한 해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영현·김현미·김효숙·유인호·김현욱·홍나영 의원 등 총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제96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시청과 교육청의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는 등 총 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세종시의회는 본회의 종료 후 “국가 균형발전과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같은 달 14일 제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총 80개 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종료했다.

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여미전·윤지성·김현미·이현정·홍나영·김재형 의원 등 총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안건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등 2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2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청년희망내일센터 운영 사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 등 28건,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이다.

아울러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등 총 80개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세종시의회는 본회의 종료 후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을 강력히 촉구했다.

대통령 직무 정지에 따른 국가적 위기 대응을 통한 국정운영 정상화 촉구 결의안

(김현옥 의원 대표발의)



김현옥 의원은 2024년 12월 16일 제9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정부와 국회에 국정 공백 해소 및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김현옥 의원에 따르면 지난 12월 3일 선포된 계엄령은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권한 범위를 벗어난 위헌적 행정작용으로, 헌정 질서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했으며 국가적 혼란과 국제적 불신을 일으켰다.

김 의원은 “국회와 국민의 단호한 의지 및 신속한 조치로 위헌적 계엄의 진행을 차단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계엄 선포 이후 대한민국은 경제, 안보, 외교 등 여러 방면에서 여전히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며, 계엄 사태로 초래된 구체적 문제들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계엄 사태로 세종시민을 포함한 국민은 정국 혼란으로 인한 불안과 경제적 피해를 동시에 겪고 있다”며, 소상공인이 상권침체와 생업 피해를 호소

하고 있는 현실을 언급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정부와 국회가 국민의 일상을 조속히 회복하고 경제적 충격을 해소하기 위한 긴급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회와 정부에 ▲경제·안보·외교 등 국정 전반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피해를 해소하기 위한 즉각적인 대책 마련 ▲계엄 사태로 훼손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회복을 통해 국민과 국제사회의 신뢰 회복을 요구했다.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촉구 결의안

(이순열 의원 대표발의)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025년 2월 4일 제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순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순열 의원은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세종시로 이전되지 않은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을 조속히 이전할 것을 정부와 국회 등에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결의안 채택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2003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이후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이 추진되었지만, 여전히 20개의 중앙행정기관과 157개의 공공기관이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다”며, “특히 여성가족부, 법무부 등 주요 기관이 세종시로 이전되지 않아 행정 비효율과 수도권

초집중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세종시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수도권에 소재하는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그리고 공공기관이 투자하거나 출자한 회사의 지방 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재추진할 것 ▲유사 기능을 가진 공공기관을 그룹화하여 권역별 집단 이전이 가능하도록 균형 있고 효율적인 정책 방향을 수립할 것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공공기관을 신속히 이전할 것을 촉구 결의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촉구 결의안」을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지방시대위원회 등에 이송했다.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 촉구 결의안

(박란희 의원 대표발의)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025년 2월 14일 제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이 국민의 평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교육비 부담 경감 그리고 지방교육재정의 안전성 확보를 도모하도록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지 않던 우리나라는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도입해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비 부담을 줄여왔으나, 현 정부가 무상교육 관련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 시행 4년 만에 중단될 위기에 처해있음을 설명했다.

끝으로 세종시의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법안 즉각 공포 ▲고교 무상교육 지원 정책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한 법제화 방안 마련 ▲고교 무상교육 지원을 지속해 국가의 책무를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이번 결의안은 국가가 책임 있는 교육 정책을 수행하도록 촉구해 고교 무상교육의 지속성과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교육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국민의 균등한 교육기회 실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시의회는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 촉구 결의안」을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교육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등에 이송했다.

제94회
정례회

주요안건 처리현황



용어
안내

- 의회운영위원회: 운영위
- 행정복지위원회: 행복위
- 산업건설위원회: 산건위
- 교육안전위원회: 교안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결특위
- 윤리특별위원회: 윤리특위

1차 본회의 | 2024. 11. 11. |

항	의안 번호	발의 (제출)자	안 건 명	본회의 심사결과
1	4369	의장	제9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원안가결
2	4370	의장	제9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원안가결
3	4371	김효숙 의원 외 3명	세종특별자치시장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원안가결
4	-	시장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 의 건	-
5	-	교육감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4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 의 건	-
6	-	시장·교육감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시정 및 교육행정)	-

제2차, 제3차 본회의의 처리 안건 없음

4차 본회의 | 2024. 11. 25. |

항	의안 번호	발의 (제출)자	안 건 명	위원회 심사결과		본회의 심사결과
1	4339	김영현 의원 외 7명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운영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2	4340	최원석 의원 외 12명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운영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3	4341	김현옥 의원 외 11명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운영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4	4312	시장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복위	수정가결	수정가결
5	4314	시장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행복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6	4315	시장	예비군 부대 사용 공유재산에 관한 경비 면제 동의안	행복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7	4316	시장	(재)세종시문화관광재단 박연문화관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	행복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항	의안 번호	발의 (제출)자	안 건 명	위원회 심사결과		본회의 심사결과
8	4317	시장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행복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9	4318	시장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행복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10	4319	시장	세종특별자치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운영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	행복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11	4320	시장	도시상징광장 운영·관리 사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	행복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12	4321	시장	세종호수공원 및 세종중앙공원(1단계) 관리사무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	행복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13	4342	이순열 의원 외 6명	세종특별자치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복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14	4343	김영현 의원 외 7명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복위	수정가결	수정가결
15	4344	김현미 의원 외 6명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행복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16	4345	여미전 의원 외 5명	세종특별자치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복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17	4346	상병헌 의원 외 11명	세종특별자치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복위	수정가결	수정가결
18	4347	김현옥 의원 외 12명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행복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19	4348	김영현 의원 외 8명	세종특별자치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행복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20	4349	김현미 의원 외 9명	세종특별자치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복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21	4322	시장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사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	산건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22	4323	시장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사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	산건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23	4324	시장	전의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산건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24	4325	시장	부강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산건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25	4326	시장	행복아파트 임대운영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	산건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26	4327	시장	신흥사랑주택 임대운영 및 시설관리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	산건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27	4328	시장	세종특별자치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건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28	4330	시장	세종 도시관리계획(성제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변경결정안 의결 청취안	산건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항	의안 번호	발의 (제출)자	안 건 명	위원회 심사결과		본회의 심사결과
29	4350	최원석 의원 외 11명	세종특별자치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산건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30	4351	윤지성 의원 외 11명	세종특별자치시 무인비행장치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건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31	4352	상병헌 의원 외 6명	세종특별자치시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건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32	4354	상병헌 의원 외 9명	세종특별자치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건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33	4355	김광운 의원 외 9명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건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34	4356	김광운 의원 외 8명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건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35	4357	여미전 의원 외 7명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건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36	4358	김효숙 의원 외 14명	세종특별자치시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건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37	4359	최원석 의원 외 3명	세종특별자치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건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38	4360	김영현 의원 외 12명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건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39	4361	윤지성 의원 외 13명	세종특별자치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산건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40	4362	윤지성 의원 외 12명	세종특별자치시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산건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41	4275	이현정 의원 외 10명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거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산건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42	4373	박란희 의원 외 17명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혁신도시법 개정 촉구 건의안	산건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43	4331	시장	세종특별자치시 재난방송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교안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44	4333	교육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공도서관 등록 및 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	교안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45	4334	교육감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학교군(구) 설정 변경안	교안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46	4338	교육감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안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항	의안 번호	발의 (제출)자	안 건 명	위원회 심사결과		본회의 심사결과
47	4363	박관희 의원 외 8명	세종특별자치시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교안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48	4364	윤지성 의원 외 9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수업나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교안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49	4365	최원석 의원 외 10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안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50	4366	이현정 의원 외 14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안전한 학교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교안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51	4367	유인호 의원 외 12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안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52	4368	김효숙 의원 외 12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안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53	4309	시장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결특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54	4311	시장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옥외광고발전기금, 고향사랑기금)	예결특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55	4337	교육감	2024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결특위	수정가결	수정가결
56	-	의장	휴회의 건(2024.11.26.~12.15./20일간)	본회의	원안가결	원안가결

● 5차 본회의 | 2024. 12. 16. |

항	의안 번호	발의 (제출)자	안 건 명	위원회 심사결과		본회의 심사결과
1	4375	의장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본회의	-	원안가결
2	4374	의장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본회의	-	원안가결
3	4209	이현정 의원 외 12명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	윤리특위	-	원안가결
4	4376	상병현 의원 외 3명	민간위탁의 운영 및 관리 제도 개선에 관한 긴급현안질문	본회의	-	-
5	4335	교육감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결특위	수정가결	수정가결
6	4336	교육감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예결특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7	4377	김현옥 의원 외 12명	대통령 직무 정지에 따른 국가적 위기 대응을 통한 국정운영 정상화 촉구 결의안	운영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8	4378	임채성 의원 외 3명	제9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본회의	-	원안가결



● 1차 본회의 | 2024. 12. 24. |

항	의안 번호	발의 (제출)자	안 건 명	위원회 심사결과		본회의 심사결과
1	4379	의장	제9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본회의	-	원안가결
2	4380	의장	제9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본회의	-	원안가결
3	4308	시장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예결특위	수정가결	수정가결
4	4310	시장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예결특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 1차 본회의 | 2025. 2. 4. |

항	의안 번호	발의 (제출)자	안 건 명	위원회 심사결과		본회의 심사결과
1	4468	의장	제9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본회의	-	원안가결
2	4469	의장	제9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본회의	-	원안가결
3	4467	이순열 의원 외 17명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촉구 결의안	행복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4	보고	시장	2025년 주요업무 계획	행복위 산건위 교안위	-	-
5	보고	교육감	2025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교안위	-	-
6	-	의장	휴회의 건(2025.2.5.~2.13./9일간)	본회의	-	원안가결

2차 본회의 | 2025. 2. 14. |

항	의안 번호	발의 (제출)자	안 건 명	위원회 심사결과		본회의 심사결과
1	4410	임채성 의원 외 13명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운영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2	4411	김효숙 의원 외 11명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운영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3	4382	시장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복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4	4383	시장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복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5	4384	시장	세종도시교통공사 현물출자 동의안	행복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6	4385	시장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복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7	4386	시장	행정기구, 중앙행정기관 명칭 반영 및 법령, 자치법규 제명 인용 정비 등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2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행복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8	4387	시장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1차)	행복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9	4389	시장	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사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	행복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10	4390	시장	전월산 국민여가캠핑장 운영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	행복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11	4391	시장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 공유재산 사용료면제 동의안	행복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12	4392	시장	종촌종합복지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변경) 동의안	행복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13	4393	시장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행복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14	4394	시장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행복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15	4395	시장	종촌종합복지센터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	행복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16	4396	시장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남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변경) 동의안	행복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17	4397	시장	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전용)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	행복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18	4398	시장	종촌종합복지센터 장애인주간이용센터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행복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19	4399	시장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행복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20	4400	시장	공공체육시설 운영·관리 공공위탁(신규) 동의안	행복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21	4412	이순열 의원 외 9명	세종특별자치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복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22	4415	김동빈 의원 외 7명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복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항	의안 번호	발의 (제출)자	안 건 명	위원회 심사결과		본회의 심사결과
23	4416	이순열 의원 외 9명	세종특별자치시 문해교육 진흥 조례안	행복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24	4417	김효숙 의원 외 9명	세종특별자치시 미술진흥 조례안	행복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25	4418	상병헌 의원 외 11명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복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26	4419	김현미 의원 외 4명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복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27	4420	김영현 의원 외 14명	세종특별자치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복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28	4421	이순열 의원 외 9명	세종특별자치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복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29	4422	김현미 의원 외 8명	세종특별자치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복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30	4423	이순열 의원 외 11명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복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31	4424	김현미 의원 외 9명	세종특별자치시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지원 조례안	행복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32	4425	김충식 의원 외 12명	세종특별자치시 식품·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조례안	행복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33	4426	여미전 의원 외 6명	세종특별자치시 회귀질환 관리 조례안	행복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34	4427	김현미 의원 외 9명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행복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35	4401	시장	청년희망내일센터 운영 사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	산건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36	4402	시장	청년자산형성지원사업 운영 사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	산건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37	4403	시장	공동구 관리업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	산건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38	4404	시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건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39	4405	시장	세종특별자치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산건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40	4406	시장	세종합강캠핑장 운영관리 사무 공공위탁(재위탁) 동의안	산건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41	4429	안신일 의원 외 12명	세종특별자치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건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42	4430	김재형 의원 외 10명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재해 예방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산건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항	의안 번호	발의 (제출)자	안 건 명	위원회 심사결과		본회의 심사결과
43	4431	안신일 의원 외 5명	세종특별자치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건위	수정가결	수정가결
44	4433	박란희 의원 외 8명	세종특별자치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건위	수정가결	수정가결
45	4434	상병현 의원 외 9명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건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46	4435	김재형 의원 외 12명	세종특별자치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건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47	4436	김현옥 의원 외 9명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건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48	4437	안신일 의원 외 11명	세종특별자치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건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49	4440	안신일 의원 외 9명	세종특별자치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건위	수정가결	수정가결
50	4441	여미전 의원 외 12명	세종특별자치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산건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51	4443	김현옥 의원 외 8명	세종특별자치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건위	수정가결	수정가결
52	4444	김영현 의원 외 14명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건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53	4445	김호숙 의원 외 10명	세종특별자치시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건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54	4446	김재형 의원 외 10명	세종특별자치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산건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55	4447	김재형 의원 외 10명	세종특별자치시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조례안	산건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56	4448	박란희 의원 외 6명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건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57	4449	박란희 의원 외 8명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건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58	4450	이순열 의원 외 10명	세종특별자치시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산건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59	4451	박란희 의원 외 8명	세종특별자치시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산건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60	4452	김동빈 의원 외 13명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산건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61	4174	김광운 의원 외 8명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산건위	수정가결	수정가결

항	의안 번호	발의 (제출)자	안 건 명	위원회 심사결과		본회의 심사결과
62	4353	여미전 의원 외 4명	세종특별자치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간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63	4407	교육감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안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64	4408	교육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교안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65	4409	교육감	세종학생정신건강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변경 동의안	교안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66	4454	유인호 의원 외 10명	세종특별자치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안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67	4455	김현미 의원 외 9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등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안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68	4456	이순열 의원 외 10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교안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69	4457	윤지성 의원 외 6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교안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70	4458	윤지성 의원 외 10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발명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교안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71	4459	이순열 의원 외 8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교안위	수정가결	수정가결
72	4460	김동빈 의원 외 11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안위	수정가결	수정가결
73	4461	유인호 의원 외 6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안위	수정가결	수정가결
74	4462	윤지성 의원 외 10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환경교육 활성화 조례안	교안위	수정가결	수정가결
75	4463	김현옥 의원 외 9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안위	수정가결	수정가결
76	4464	김효숙 의원 외 10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기숙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교안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77	4465	박란희 의원 외 12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물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물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교안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78	4466	박란희 의원 외 9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안	교안위	수정가결	수정가결
79	4471	박란희 의원 외 9명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 촉구 결의안	교안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80	4470	의장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본회의	-	원안가결



청소년 의회교실을 다녀와서



세종미래고등학교 1학년 김윤아

처음에 지방의회 회의에 참여하러 간다는 안내를 받았을 때 그냥 수업을 빠지고 바람 좀 쐬러 간다는 거에 좋아했었는데 의회에 직접 가서 둘러보니 엄청 새로웠다. 처음 만난 분은 김동빈 의원님이었다. 근무하시는 방에서 주로 하시는 일을 중심으로 시의회 역할에 대해 설명해주셨다. 사실 바람 쐬러 가는 기분으로 온 터라 큰 관심 없이 듣기 시작했지만 의원님이 설명해주시는 내용을 듣고 보니 처음 생각과 달라졌다. 시의원의 역할들 대부분은 많은 시민을 대표해 시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찾고,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그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일이라고 설명해주셨다.

본회의 참관 당시 세 분이 자유발언을 하셨는데, 김동빈 의원님은 부강지역 축사의 악취 문제 개선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발언하셨다. 아마 김동빈 의원님 지역구가 우리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곳이라서 부강지역 축사 악취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을 발언하신 것 같았다. 나도 부강에 있는 우리 학교 기숙사에서 지내면서 안개 낀 날이면 스멀스멀 올라오는 축사 악취에 코를 막고 학교생활을 하기 일쑤였던 날이 생각나며 정말 필요한 발언이었고, 시의원의 발언이 내 삶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구나! 라고 체감되었다. 물론 아직 악취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닌 것 같다. 냄새가 아예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이전처럼 기억 없는 냄새를 맡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고, 곧 해결되겠지 라는 희망적인 생각이 들고 금요일에 기숙사를 나와 주말을 보내기 위해 집에 가면서 지나가는 시의회 건물을 보며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김동빈 의원님 말고 세 번째 발언하신 의원님도 잊을 수 없다. 사전에 허락받지 않은 내용으로 발언하시게 되어 의장님이 제지하셨음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 말을 이어나가셨고, 틱톡과 인스타 릴스에서만 보던 마이크가 꺼진 후에도 계속 발언하는 모습, 다투시는(?) 모습이 떠오른다. 그런 장면을 실제로 경험하다보니 신기한 생각과 그런 모습 또한 민주주의의 한 모습인 것으로 느껴졌다.

마지막 모습까지 방청하고 싶었지만 오후 수업시간 때문에 아쉽게 학교로 복귀해야 했지만, 내 지역 문제에 대한 해결과 의회에서의 다양한 발언이라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학교 선생님과 우리의 편리한 방청을 위해 차량도 보내주신 의회 공무원분들께 감사한 마음이 든다.

다시 기회가 된다면 한 번 더 가보고 싶고 가끔 유튜브나 TV에서 나오는 시의회 회의에 대해 더 관심 갖고 찾아보도록 해야겠다는 마음이 든다.



냉랭함 속의 따뜻함을 찾다



온빛초등학교 6학년 한 서 인

처음 제가 생각한 의회란 곳은 단순히 국가의 문제에 대한 토론만 하는 곳으로만 느껴졌습니다. 토론 주제인 정치 또한 지루하고 복잡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가끔 뉴스를 보면 의회에서 일어나는 다툼이 싸움을 한다고 느껴졌고 많은 갈등과 의견 대립이 일어나는 것이 모두의 평화를 위한 것은 아니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의회의 결정이 제가 살아가는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회 교실을 직접 체험하면서 저는 민주주의가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다양한 생각들이 존재하고 이러한 생각이 모여서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직접 의회에서 토론을 진행하면서 다른 친구들의 목소리를 듣고 저를 포함한 의견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와 제 친구들이 직접 우리들의 목소리를 내고 이러한 것이 의견으로 받아들여지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모여서 더 좋은 의견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토론에서 찬성과 반대투표를 진행하고 결론을 만들어가면서 의회에서 사람들이 모여 법을 만들고 그러한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런 민주주의적인 과정이 없었다면 오직 한 사람의 의견만을 따라서만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다양한 시민들에게 맞는 해결책을 줄 수 없어 시민들은 많은 근심거리를 가지고 살아갔을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민주주의를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서로 존중하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체험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의회에서 직접 저희와 관련된 학교를 주제로 토론하다 보니 의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과정들이 저희가 살고 있는 삶에 연관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6학년의 우공공 사용을 주제로 토론하여 사용하지 말자라는 결론에까지 이르면서 의회란 저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도 이렇게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회 교실에서 수업만 받는 것이 아닌 직접 토론도 해보는 체험까지 해보니 지루함을 느낄 수 없이 흥미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교과서로 보는 의회는 복잡하고 냉랭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고 느꼈고 다루고 있는 정치 또한 앞에 말한 것처럼 지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의견을 조정하고 투표를 진행하면서 단순히 복잡한 것이 아닌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 민주적으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따뜻한 곳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제를 느낄 수 있는 시의회 견학



참샘초등학교 6학년 서예은

‘지방자치제’는 지방의 주민이 직접 지방의 일을 처리하는 것이다. 시의회는 그중에서도 ‘조례’ 즉 지방을 위한 ‘맞춤법’을 만드는 곳이다. 나는 정치에 관심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기사나 뉴스는 시의회에 대해 자세하게 다루지 않기에 시의회에 대해 잘 몰랐다. 자세히는 몰라도 국회의 축소판 즈음으로 알고 있었다. 하지만 시의회도 국회만큼이나 지방에서 소중한 존재였다.

의회에 도착하자 한글을 사랑하는 도시 세종시답게 외벽과 창문에 한글 무늬가 새겨져있었다. 우리가 버스에서 내리자 안내 선생님이 우리를 맞아주셨다. 건물 안 로비로 들어가자 세종시 의회에 관한 영상물과 함께 다른 나라에서 의회에게 증정한 기념품을 전시한 공간이 있었다. 다른 나라 의회와의 교류가 이렇게 많다니 참 신기했다. 안에는 작은 도서관도 있었다. 시의원분들도 여기서 책을 읽으셨을까? 잘은 모르겠지만 사회·경제를 고려하는 법을 만드는 시의원분들을 위한 책들 같았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교육안전위원회가 있는 4층으로 이동했다. 교육안전회 위원장 자리와 의원님들의 자리, 발언대가 있는 작은 회의실이었다. 의사봉을 땡땡 치는 것이 매우 재밌었다. 이 공간에서 세종시의 교육 관련 일들이 결정된다는 사실에 의원님들께 감사함도 느꼈다. 또 조금 큰 회의장도 가보았다. 분명히 회의장이 더 있을 텐데 엄청난 회의실 수를 상상하게 되자 지방자치제의 대단함과 스케일을 실감했다.

다음으로 대망의 본회의장에 도착했다. 생각보다 큰 크기에 깜짝 놀랐다. 팀장님의 설명을 들으며 퀴즈도 맞추고 홍보영상도 시청하면서 의회에 대한 지식을 쌓았다. 모두 재밌었지만 퀴즈를 맞히지 못해 춘식이 부채를 타지 못한 것이 너무 아쉬웠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실제로 기계를 이용해 투표를 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재석, 반대, 찬성을 골라 투표를 하고 대형 전광판에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신기했다. 또한 의회의 엄숙한 분위기 덕분에 차분히 생각하고 투표할 수 있어 우리 반의 왁자지껄한 투표와 비교되어 재미있었다. 또 실제 의원님 이신 안신일 의원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사진을 찍었다.

생각보다 가까이 있는 시의원님들께 놀랐고 지방 자치제의 실현성이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느꼈다. 또 높은 의장석에 앉아보는 것도 재미있었다. 의사봉이나 마이크 체험도 정말 재미있었다. 의회에 가보니 정말 지방자치제가 잘 실현되는 것을 느꼈고 세종 시민들의 정치 참여도 역시 느낄 수 있었다. 국회도 나중에 꼭 가보고 싶다.



세종시의회 구경과 찬반투표 체험



참샘초등학교 6학년 김 동 건

국회만 있는 줄 알았는데 세종시에도 의회가 있다는 것을 청소년 의회교실을 통해서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세종시 의회에 직접 방문해서 건물 내부도 둘러보고 지방의회에서 하는 일들과 의회의 역할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세종시의회는 지방의회이다. 국회의원이 아니라 시의원들이 세종시의 지방자치에 관련한 일들을 논의하고 결정한다고 한다. 우리가 학교에서 학급회의를 하는 것처럼 지방의회에서도 안건을 가지고 토론하고 찬반투표를 통해 결론을 내린다.

우리는 의회를 둘러본 후 본회의장에 들어가 일일 시의원이 되어 본회의를 체험해 보았다. 본회의장은 텔레비전에서 본 국회와 비슷한 느낌이었다. 넓은 공간에 실제로 시의원들이 앉아서 투표를 하는 자리들이 있었는데, 자리마다 모니터와 찬반투표를 위한 특수한 버튼이 있었다. 각자 그 자리에 앉아 시의원처럼 찬반 투표를 해 보았는데, 본회의장 정면의 화면을 통해 전체적인 투표 현황이 실시간으로 공개된다. 누가 찬성, 반대, 재투표를 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어서 놀랐다. 조금 무섭게 느껴지기도 했는데, '시의원은 그만큼 더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의 의견을 결정해야 하는 자리겠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시민을 위한 시의원인 만큼 그런 부담감은 당연한 것인가 보다.

하루짜리 청소년 의회교실 체험이었지만 세종시에도 의회가 있다는 사실과 의회가 하는 일들을 배울 수 있어서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 의회에 다녀온 후, 가끔씩 세종시의회에 관한 이야기를 부모님에게 들을 때마다 반가운 기분이 들었다. 예전엔 전혀 몰라서 부모님이 이야기를 해도 절대 귀에 들어오지 않던 이야기들이 이젠 조금씩 관심이 생긴다. 시청과 의회가 분리되어 있는 기관이고 들은 같은 의견을 가질 수도 있고 다른 의견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서로 견제하기도 협력하기도 하면서 균형을 맞추어 가는 것이다.

청소년 의회교실이 내 주변에 더 관심을 가지고 이해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다. 아직 나는 어리지만 그래도 계속 내 주위의 문제를 들여다보고 목소리를 내기 위해 노력해 보고 싶다.



의회를 방문해서 좋은 점과 느낀 점!



보람초등학교 4학년 이지아

청소년 의회교실에 다녀왔다. 나는 의회에 가본 적이 없어 관심은 딱히 없었지만 가보니까 생각이 바뀌었다. 의회는 무슨 곳인지 궁금했다. 청소년 의회교실에서는 유인호 의원님의 의원실에서 유인호 의원님이 설명을 해주셨다. '유인호 의원님은 보람동의 대표 의원님'이시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유인호 의원님과 함께 사진을 찍어서 좋았다.

다음에는 진짜 회의하는 것을 눈으로 보니 신기하고 존경스러웠다. 5명의 의원들이 자유발언을 했다. 자유발언은 의원마다 다 달랐다. 그 발언 중에 체육 유망주 중·고등학교가 세종에 없다고 발언을 하셨다. 나는 예술고등학교가 세종에 있어서 체육(유망주)가 갈 중·고등학교가 있을 줄 알았다.

그리고 강아지 입양을 하는 곳은 발전을 하지 못해 안락사가 되고 있는 강아지들이 불쌍했다. 그런데 이 의견도 나왔다. 그런데 이 의견이 진짜로 법에 나왔으면 하는 마음이 너무 있었다. 그리고 이 의견들을 모두 들어보니 모두 공감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컸다. 의원님들은 이 회의를 하기 위해 계속 이것에 대한 책을 읽고 고민해서 오랫동안 이 주제에 대해 준비한다고 하셨다. 근데 이것은 가뿐히 생각하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존경스럽고 그냥 쉽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것을 어떻게 할까?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할까? 책 몇 권을 읽어야 할 수 있는 걸까? 얼마나 많은 정보를 모아야 이 회의를 할 수 있을까? 많은 문제 중에 이 하나의 문제를 어떻게 고르는 걸까? 등의 많은 궁금증이 생각이 났다. 이것을 모두 고려해 깊게 생각하면 너무 어렵고 힘들 것 같았다. 물론 존경스럽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이 일에 행복을 느끼는 의원들의 마음이 너무 궁금하고 궁금했다. 의원들은 참 대단한 것 같다.

그리고 평소에 무엇을 하는지 궁금하고 궁금했다. 그중에서도 세종에는 많은 동·읍·면이 있는데 그 동·읍·면을 대표하는 약 20명의 대표 중에 그것을 5분 동안 발표한 의원들과 그것을 정리해 주신 의장님이 가장 대단했다. 나는 의회에는 관심은 없었다. 물론 시청 옆에 있는 건물이 뭐지? 이 정도만 궁금했었다. 그리고 대평동, 소담동, 반곡동, 보람동을 제외한 다른 동·읍·면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런데 이 의회에 갔다 와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궁금증을 쉽게 없앨 수 있었다. 그런데 의회에 다녀와서 궁금증이 더 생겼다. 하지만 부뒸했다. 의회에 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궁금증은 없애고 더 많은 지식을 알았기 때문에 갈 수 있으면 한 번 더 가서 보고 싶었다. 그리고 이 의원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싶었다.



세종시의회 간 날



연서초등학교 6학년 곽금비

지난 4월 19일, 우리 연서초등학교 6학년 1반은 세종시의회를 방문하는 현장학습을 떠났습니다. 평소에 뉴스나 책을 통해만 접하던 세종시의회를 직접 방문하게 되어 모두 기대가 컸습니다. 학교에서 준비물을 챙기고, 선생님께서 여행 계획을 설명해 주신 후, 버스를 타고 세종시로 출발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친구들과 여행의 목적과 의회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모두 궁금한 점들을 나누었습니다. 세종시로 가는 길은 정말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세종시의회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먼저 의회의 외관을 보고, 그 규모와 멋진 디자인에 감탄했습니다. 세종시의회는 아주 현대적인 건물로, 우리나라 정치의 중요한 장소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 우리는 의회 내부로 들어가 의원실과 회의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의회 회의장은 정말 크고, 우리가 TV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 명의 의원들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의회의 주요 기능과 의원들이 어떻게 법을 만들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특히 의사봉을 직접 만져볼 수 있었던 순간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 의사봉은 회의를 진행할 때 사용하는 중요한 도구라고 하셨는데, 우리도 그 자리에 앉아서 마치 의원이 된 기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의회에서 법안을 토론하는 모습도 상상해 볼 수 있었어요.

세종시의회를 방문하면서 의회가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뉴스나 신문을 통해 의회의 활동을 접하곤 했지만, 실제로 의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각 의원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직접 보고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경험이었습니다. 정책을 만들고, 우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알게 되면서, 정치가 단순히 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와 직접 연결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동네의 도로 공사, 학교 주변의 안전 문제 등도 의회의 논의와 결정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죠.

이번 현장학습을 통해 정치와 의회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정치나 의회 활동이 멀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기관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을 만드는 과정, 의회에서의 토론과 논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체험을 통해 배울 수 있어 정말 뜻깊었습니다. 또한, 친구들과 함께 의회 건물을 돌아보며 더 많은 질문을 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정말 즐거웠습니다. 이번 현장학습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에 대한 생각과 정치적 참여에 대한 첫걸음을 내딛는 의미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세종시의회를 떠나면서, 모두 기분이 좋았습니다. 평소 알지 못했던 정치와 의회의 중요한 역할을 알게 되어 매우 뜻깊었고, 그곳에서 배운 것들을 친구들에게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의회 회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법을 만드는 과정을 알게 되어 더 많은 관심이 생겼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앞으로 정치나 사회 문제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갖고, 나도 그 과정에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경험을 통해 더 많이 배우고, 세상에 대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과서와는 다른, 실제 의회



온빛초등학교 6학년 이규화

리더십 캠프로 청소년 의회교실에 참가하게 되었다. 5학년 때 사회 교과서에서 법을 배웠을 때 관심이 생겨서 의회에 가는 것이 기대되었다. 막상 도착하니 TV로 보던 의회가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어서 신기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 여러 팻말들이 우리를 반겨주어서 벅찬 마음이 들었다. 우리를 위해서 따로 준비해 주신 것 같아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먼저 회의실에 들어갔는데, 벽에 달려있는 커다란 금색 무궁화 모형에 '의회'라고 쓰여 있었다. 그것을 보니 진짜로 의회에 왔다는 것이 실감이 났다. 실제 본회의장은 뉴스 화면이나 교과서에서 봤던 것보다 더 멋지고 웅장했다.

친구들이 모두 자리에 앉은 뒤 우리 지역의 의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곧 모의의회가 시작되었다. 친구들 한 명, 한 명 자기 역할을 하며 진행되었다. 내 차례가 되었을 때 나는 앉아 있는 친구들과 선생님들께 인사를 하고 나서 다시 한번 또 인사를 했다. 그리고 앞으로 걸어가 단상 앞에 섰다. 연습할 때는 별로 안 떨렸는데 막상 발표를 하려고 하니 무척 떨렸다. '의원님들도 이렇게 긴장하며 회의를 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발언을 했다. 비록 모의의회였지만 실제 의회의 본회의장에서 발언을 했다는 것이 아주 영광스러웠다. 의원님도 만나고 교과서에서만 보던 의회에 내가 왔다는 것이 설렘. 단상 앞에 서니 실제 의원이 된 것 같은 기분도 들었다.

사실 그동안 부모님께서 뉴스를 보실 때,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마치 어린이처럼 서로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기 의견만 내세우면서 소리까지 지르는 모습을 본 적 있다. 그때 나는 '어른들이 초등학생이 회의하는 것보다 못할까'라는 생각도 들었다. 우리가 모의 의회를 한 것처럼 의원님들도 차분하게 자기 의견을 말하며 다른 사람의 의견도 존중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다음에 다시 청소년 의회교실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청소년들을 위해 의원님들이 해주셨으면 하는 일들을 정리해서 발표해 보고 싶다.

우리 온빛초등학교가 3주체가 이끌어가는 학교인 것처럼 내가 발표한 내용이 실제 법이 되어 세종시 청소년들을 행복하게 해준다면 정말 뿌듯할 것 같다.



세종시 의회에서는 무슨 일을 할까요? 정말 궁금해요 !



아름초등학교 4학년 고지윤

저는 저번 주 목요일, 9월 26일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가서 청소년 의회교실에 참여했습니다. 저희 반은 세종시 본회의실에 가서 의원들이 앉았던 의자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본회의실에 처음 발을 내딛은 순간, 회의실의 웅장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곳에 있으면서 의회는 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자치단체이고, 여러 가지 일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세종시의 법률이라고 할 수 있는 조례를 새로 만들고, 바꾸는 일을 합니다. 또, 세종시의 1년 살림살이 예산을 심사하여 확정하고 올바르게 쓰였는지 꼼꼼하게 합니다. 시청과 교육청에서 일을 잘하고 있는지도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불편한 일이나 건의사항을 처리하거나 시청, 교육청에 정책 제안을 합니다. 저는 이 밖에도 의회에서는 많은 일을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의회에 관해 알아본 뒤, 저는 드디어 세종특별자치시 의원들 중 아람동을 대표하는 의원, 상병헌 의원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는 아람동을 대표하는 의원을 만날 수 있게 되어 기대가 되고 신이 났지만, 조금 긴장이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의원들이 하는 일하고 지방 의회의 역할을 간단히 소개해 주셨습니다. 상병헌 의원은 저희에게 간단한 퀴즈를 내셨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다음으로는 의회에 관한 퀴즈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문제가 전보다 난이도가 조금 올랐고, 문제를 맞추면 조그만 선물도 주셨습니다. 문제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서 제정하는 자치입법이 무엇인지 등을 물었습니다. 퀴즈가 끝나고 몇 명의 친구들은 앞으로 나와 2분 자유발언, 찬반 투표, 결과 발표, 수료증 받기 등을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끝나자 이제 한 명씩 나와서 의장 자리에 앉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의장 자리로 계단을 올라갈 때마다 심장이 계속 두근거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랬지만 정말로 자리에 앉은 순간, 제가 웬지 높은 자리에 오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에 다녀온 뒤, 친구들의 2분 발언을 듣고 찬반 투표를 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진짜 의원 자리에서 진짜로 전자 투표를 진행하는 동안, 저는 계속 제가 커서 의원이 되어 이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저는 세종시의회에 다녀와 이제는 의회가 하는 역할을 잘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세종시를 대표하여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세종시 의원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누구나 들어가지 못하는 세종시의회에 제가 들어가 볼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저는 즐거웠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세종시를 더 사랑하고 아껴야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interview
01

효율성 있고 건전한 예산 운용에 힘쓸 것

이현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해진 자금으로 가장 효과적인 결과를 창출해 내는 것과, 그 일을 진행하는 과정을 어느 하나 걸림 없이 정직하게 해 내는 것은 공존하기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진다. 예산의 운용을 위해 기치로 내걸곤 하는 ‘효율과 건전’이 바로 그것이다. 제4대 의회 후반기 첫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현정 위원장은 가장 올바른 길로 나아가 최고의 효과로 수렴되는 예산 운용을 목표로 내걸었다. 가장 이상적이지만 실현을 위해선 엄청난 노력이 필요할 길. 이 길의 출발선을 막 출발한 이현정 위원장의 청사진을 함께 들여다보자.



Q. 제4대 후반기

첫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취임하셨다.

소감과 포부가 궁금하다.

제4대 세종시의회 후반기 첫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고 동시에 큰 책임감을 느낀다. 시민과 동료 의원님들의 신뢰와 지지를 받은 만큼,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특히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고 생각한다. 가장 올바른 길로,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싶다. 비록 이상적 결과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그 과정을 완벽하게 해내고자 한다면 최선의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 믿는다. 세수 부족 사태에서도 시민의 삶이 나아질 길을 면밀히 모색하겠다.

Q.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어떤 것이며,

그 특수성을 기반해

운영할 방침이 있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에 대한 예산심사를 매년 시행하는 곳이다.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어떻게 쓰였는지 점검하고, 관련된 안전을 심사 및 의결 처리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재원을 적재적소에 배분하여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아울러 교육환경이 지속 가능하도록 개선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그리고 결산 검사를 수행하여 예산이 적합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재정 운용에 대한 효율성과 건전성을 확보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제가 세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방침은 앞서 말씀드린 바를 기반으로,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자원이 적재적소에 배분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예산안 심사 시에는 모든 재정사업을 시민의 눈으로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불요불급한 선심성·행사성 예산은 없는지 등을 철저히 심사할 것이며, 결산 심사 시에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면밀히 살펴 시민의 소중한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하겠다.

Q. 예산 심의 시 축소가 필요한 부분과

확대해야 할 부분에 대한

견해가 있다면?

예산 심의는 협치의 과정이자 시민의 복리와 직결되는 중대한 의사결정 과정이다. 시민이 직접 겪는 어려움, 예산의 현실성 등 시



민의 목소리와 동료 의원, 집행부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들으며 조율해야 한다. 이를 모두 경청하여 원활한 소통을 원칙으로 각 상임 위에서의 예비심사 의견을 존중하고, 예결위 위원님들과 협력하여 조율하도록 하겠다.

또한 재정사업의 시급성과 효과성, 필요성을 기준으로 예산안을 철저히 검증하여 낭비 요인을 개선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안전, 미래성장동력사업에 재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Q. 취임 이후 반년 정도의 기간이 지났다. 직접 경험해보니 생각보다 더 어렵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

세종시의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직접 예산을 심사하면서 고민할 부분이 예상보다 훨씬 많고, 복잡하며 다층적이라는 것을 실감했다.

특히 세수 부족의 실정 속에서 한정된 예산을 효과적으로 배분하는 일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분배하는 일에 집중하려 했지만, 가장 밀접한 곳에서 들여다보니 다

양한 이해관계가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적은 예산을 나누고 나누어 조정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다.

또한, 시민들의 기대와 행정적 필요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도 중요한 과제였다. 세수라는 것이 시민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혈세로 이루어진 것이기에,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쓰였다는 사실을 시민이 느낄 수 있도록 분배해야 했다. 하지만 새로운 변화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필수행정에 대한 수요 또한 감내하자니 예산이 한정 되어있어 막막했다. 막연하게만 느끼던 책임감이 현실적으로 와닿았달까. 그래도 그동안 많은 고민과 논의를 거쳐 최선의 방향으로 예산을 심사해 왔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앞으로도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예산을 운영해 나가겠다.

Q. 현재 세종시 세수 부족 상황이 심각하다. 해결책이 있다면?

경기 부진과 부동산 침체, 고금리와 고물가, 감세 등에 기인한 지금의 재정위기는 지방정부의 의지만으로 극복하기엔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우리시는 줄어드는 세입에 비해 도시의 성장과 행정수도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재정지출이 급속히 증가하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더욱 어려운 처지다. 다양한 세입원 발굴과 세출구조조정, 관행적 지방보조사업 정비, 예산집행률 제고 등 자구적으로 노력하며 불확실한 재정 여건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교부세 등 재정 특례 확대는 물론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적 개편, 중앙·지방 간 권한과 역할 구분에 관한 고민까지 필요하다.

**Q. 하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반드시 이루고 싶은 바가 있다면?**

예산의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고, 심의·의결권은 의회에 있다.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시청과 의회가 결과에 공동 책임을 지게 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심의 시,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시민의 목소리와 동료 의원, 집행부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소통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만들도록 하겠다.



**Q. 집행부나 세종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시 집행부에는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위해 철저한 예산 편성과 집행을 당부하고 싶다. 시민의 삶과 직결된 영역을 살피고, 시민이 편익을 도모할 수 있을 편성이 필요하다. 모든 재정사업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고,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심혈을 기울여 시의 재정을 운용토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세종시민들께는 시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함께 힘을 모아 현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더 나은 세종시를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interview
02

협동 이끌어내는 윤활제 되고파

김현옥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대표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사람의 마음은 그 스스로가 표현하기도 힘들고, 타인이 헤아려 소통하기는 더더욱 힘들다. 하지만 그런 불확실성 속에서도 서로의 진심을 읽고 협동을 이끌어내려 노력하는 이는 언제나 있다. 김현옥 제4대 세종특별자치시의 회 후반기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대표는 당의 내부, 당 대당의 중심에서 중간자의 역할을 자처하며 사람과 사람 간의 협동을 이끌어내는 윤활제가 되고 싶다고 강조했다. 정확한 판단력으로 서로가 납득할 만한 화합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김현옥 대표의 이야기를 열어보자.

**Q. 교섭단체대표로 선임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교섭단체대표로 선임되어 굉장히 영광스럽다. 하지만 한편으로서는 고민도 공존한다. 어느 자리나 그럴 것이지만 교섭단체대표는 어깨가 무거운 직책이다. 의원들의 의사를 사전에 충분히 잘 듣고 통합해야 하고,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조정을 해 교섭창구 역할을 해야 한다. 원만하게 조정을 이끌어내는 것도 어렵겠지만, 도달한 결론이 최선일지에 대한 고민도 언제나 이어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스스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라 생각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고 있다.



**Q. 당론을 수렴해 의회 운영 방향과
절충하는 교섭단체의 대표자로서,
앞으로 어떤 자세를 가지고
활동에 임할 것인지?**

조정을 하는 중간자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심을 가장 잘 잡아야 한다.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아야 하고, 그 와중에 당을 열고 있기 때문에 당론을 전달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 당과 의원들 간의 메신저라고 할 수 있겠다. 다른 의원님들과는 동료관계이기 때문에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혹시라도 이견이 생길 경우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풀어내는 역할이 중요하다.

한마디로 정말 '부지런'해야 한다. 침묵은 불통의 역사만 강고히 할 뿐이라고 생각한다. 침묵이 이어지지 않도록, 서로 현저히 다른 입장이더라도 대화를 통한 협력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한 명 한 명 찾아다니고, 또 부단히 소통의 자리를 만들고자 뛰어나며 노력해야 하는 자리가 교섭단체대표 역할이 아닐까. 동료 의원님들 모두가 회기나 개인 의정활동으로 바쁜 시기라 녹록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해 의견을 듣고,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다. 크든 작든, 이러한 시도 자체가 공동체 안에서의 윤희유가 될 것이라 믿는다.



**Q. 지방의회 내 교섭단체 대표가
가져야 할 역량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판단력이라고 생각한다. 대화를 하다보면 대부분 그 속에 이미 답이 있는 경우가 많다. 그것을 간파하지 않아야 한다. 정확한 판단력으로 그 부분을 빨리 간파해 낸다면 대화가 길어지지 않아도 된다.

중재자의 판단 없이 서로의 의견을 피력하다 보면 내용이 겹돌고 대화의 본질은 잊히기 마련이다. 오해가 생기기 전에 해결책을 간파해서 논의의 골자만을 뽑아내는 판단력이 필수적이다. 지방의원을 하기 전 가정법원에서 조정위원으로 활동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 경험을 통해 조율과 협의, 조정을 이끌어내는 역량을 단련할 수 있었다. 교섭단체대표를 하면서도 그 경험을 토대로 서로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에 도달할 수 있도록 힘쓸 예정이다.

**Q. 현재 교섭단체대표가 된 지
반 년 정도가 흘렀는데,
어려웠던 점을 꼽자면 어떤 것인가?**

아마 누구든 그렇겠지만 예측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가장 힘들었다. 교섭단체대표를 반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해오면서, 정월 박람회, 그로 인한 시장님의 단식과 같은 여러 이슈가 있었다. 당과 당, 그리고 시민들 각각의 의견 또한 첨예하게 갈렸던 사안이 었다. 어떻게 이 일을 현명하게 헤쳐 나갈 수 있을까, 고민으로 많은 밤을 지새웠다. 아마 가장 생각이 많았던 순간이 아닐까. 결국 '시민을 위한 쪽'으로 당도하자는 결론에 이르렀고, 그 신념을 바탕으로 헤쳐 나갔다고 생각한다.





**Q. 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은
어려웠던 점을 어떻게 해결해나가고자
하는가?**

앞서 언급한 깨달음이 교섭단체대표 활동의 등대가 되었다. 이전과 차이가 있다면 깨달음을 실행할 지혜가 쌓였다는 점일 것이다. 초선의원으로 후반기 의정활동에 접어들며 경험치가 쌓이고, 정치나 행정을 보는 범위도 넓어졌다. 단순한 통계나 자료를 찾아본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몸으로 현장을 겪어보며 얻은 판단력이 생겼다.

이런 판단력은 비단 저에게만 생긴 것은

아닐 것이다. 재선 의원님들은 더 노련한 안목이 생기셨을 테고, 초선의원님들 역시 저와 같은 발전에 도달했을 터다. 이제 더 체계적으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견고한 집단 지성이 만들어졌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이견이 생기더라도 각각의 경험과 역량을 모아 잘 헤쳐 나갈 수 있으리라 믿는다. 그 중심에서 저 역시 이렇게 본궤도에 오른 전문성을 발판 삼아 예측하지 못한 일들에 대응하는 순발력을 발휘하고자 한다.

**Q. 끝으로 포부를 담아
시민께 전하고 싶은 말은?**

그동안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응원과 격려가 없었다면 의정활동을 이렇게 열심히 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격려와 관심이 모두 원동력이 되어 지금의 김현옥 의원, 그리고 세종시의회의회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교섭단체대표로서 남은 임기, 의원으로서 남은 임기 모두 후회 없이 끝마칠 수 있도록 매분 매초를 가치 있게, 오직 시민을 위해서 쓰고 싶다.

제 슬로건이 ‘수준 높은 시민 속으로’였다. 이미 세종 시민의 의식은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이제껏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수준 높은 시민 속에서, 시민의 삶과 함께 묵묵히 전진하고자 한다.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



interview
03

‘중용의 가치’로 소통하는 의회를 꿈꾸다

김충식

국민의힘 교섭단체대표

지나치지 아니하고, 한쪽으로 치우치지도 않으며 기복이 없이 꾸준한 상태나 정도를 일컬어 ‘중용(中庸)’이라고 한다. 2024년 제4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교섭단체대표로 선임된 김충식 의원은 당과 의회, 의회 내 양당, 그 소통의 중심에서 조율의 가치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중용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권리를 누리는 연장자가 아닌,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연장자로 거듭나 앞으로의 과제들도 해결하고 싶다는 김충식 대표. 당의 경계를 넘어 그 속의 작은 목소리들도 빠짐없이 경청하고 싶다는 김충식 국민의힘 교섭단체대표의 ‘협치 철학’을 청해 들어본다.

**Q. 교섭단체대표로 선임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교섭단체대표로 선임되어 기쁜 마음보다 무거운 책임감이 더욱 크다.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향으로 의회 내 협력을 이끌어 나갈지 고민이 된다. 교섭단체대표의 주된 임무는 상호 간 다른 의견을 조율하고 상생을 위해 원만한 의회 운영을 이끄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의 경험, 연륜을 강점으로 삼아 의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대표가 되고자 한다.

여소야대의 지형 속에서, 서로의 입장차이로 갈등하기도 하고 첨예한 대립을 겪기도 했지만, 크게 보면 결국 시민을 위한 마음 하나는 서로 다름이 없을 20인의 의원들이다. 누구 하나 틀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양한 방향을 경청한다는 마음으로 협치를 이끌어내겠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다.

**Q. 당론을 수렴해 의회 운영 방향과
절충하는 교섭단체의 대표자로서,
앞으로 어떤 자세를 가지고 활동에
임할 것인지?**

개인적으로는 젊은 의원님들과의 소통 또한 과제로 삼고 있다. 다양하게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최적의 결과로 당도하도록 이끄는 것이 중요한 덕목이 아닐까. 당론을 수렴해 정당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또한 대표의 임무이다. 하지만 당론을 수렴하는 것과 당리당락에 치중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다. 당리당락에 치중하고 중앙정치의 흐름에 매몰되는 교섭단체대표가 아닌, 시민의 입장과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한 도전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펼치고 싶다. 시의원에 처음 도전할 때의 초심을 가지고 활동에 임하겠다.





**Q. 지방의회 내 교섭단체대표가
가져야 할 역량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교섭단체대표가 가져야 할 역량은 ‘경청’과 ‘중용’이라고 생각한다. 대표자는 개인 의견이 아닌 단체를 대변해야 한다. 개개인이 모여 이뤄진 단체는 엄청난 다양함을 내재한다. 그를 대변하는 하나의 공통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한명 한명의 의견을 잘 듣고 상호 윈윈한 방향으로, 치우치지 않게끔 이끄는

자세가 필요하다. 경청은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 상대의 마음까지 담을 수 있도록 배려하며 듣는 자세이며, 중용은 지나치거나 모자람 없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음을 뜻한다. 절대적인 가운데 지점이 아닌, 여러 요소를 고려한 끝에 ‘이견이 있는 서로에게 가장 좋은 지점을 찾아내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이 두 가치를 기반으로, 교섭단체의 뜻을 개진하여 협의를 도모하고자 한다.

**Q. 현재 교섭단체대표가 된 지
반년 정도가 흘렀는데,
어려웠던 점을 꼽자면 어떤 것인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집행부와 시의회가 다른 의견을 가질 때 그것을 조정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 특히 여당 교섭단체대표는 집행부와 의 관계와 철학을 같이 고민해야 하고, 의회 내에서는 여야 간 생각이 다른 사안을 조정하고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작년 연말 몇 가지 사안으로 여야 간의 입장이 극명하게 차이가 날 때 굉장히 고민이 많았다. 태생적으로 갈등을 싫어하는 터라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할지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국회 원내대표든, 지방의회의 교섭단체대표든 직책명은 다르지만 하는 일은 본질적으로 같다고 생각한다. 소속 당에서 추구하는 것을 대변하고, 같은 당 의원들 간의 화합도 만들어내야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전체적인 통합과 소통이 필요하다. 여러 의견이 엇갈릴 때면 한길로 수렴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이 역시 시민을 위한 길을 우선으로 두면 답이 보일 것이라 믿는다.

**Q.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은
어려웠던 점을
어떻게 해결해나가고자 하는가?**

임채성 의장께서도 최근 언론을 통해 집행부와와의 협치를 강조하고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셨다. 저도 이처럼, 이제는 생각의 차이, 혹은 다른 의견을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젊음의 열정과 패기도 필요하지만, 연륜과 경험을 통한 진솔한 접근이 더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유학의 장유유서(長幼有序)가 내포하는 철학은 그저 '나이가 많음'이 아니라 수많은 경험에서 얻어진 지혜의 축적을 기반한 가치라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연장자는 물리적 시간의 양이 아닌, 세월로부터 얻어진 경험에서 연륜을 쌓아 삶을 지혜롭게 개척해야 한다. 권리를 누리는 연장자가 아닌, 책임과 의무를 지혜롭게 지는 연장자로 거듭나 앞으로의 과제들도 해결하고 싶다. 인생 선배로서 소통의 폭과 깊이를 넓히고 높여 젊은 의원분들과 소통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젊은 창의력으로부터 우리 기성세대가 배워야 할 부분 또한 존재한다. 돌아보면 “고개 숙이길 잘했다”하는 순간이 있

다. 젊은이들의 경험과 지식이 새롭고 미래 지향적일 때가 많았다. 젊음의 새로운 시각을 선입견 없이 받아들이고, 세월의 연륜도 겸비한 교섭단체대표로 거듭나 세종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

**Q. 끝으로 포부를 담아
시민께 전하고 싶은 말은?**

늘 시민 여러분께 박O스 같은 '에너지 음료'가 되고 싶다고 말씀드리곤 했다.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고, 마시고 나면 단번에 기운이 나고, 절로 웃음이 나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다. 아울러 시민들에게 즐거운 소식을 많이 전하는 세종시의 유쾌한 메신저가 되고 싶다. 늘 좋은 소식을 만들어 드릴 수 있고, 어두운 부분은 밝게 비추는 김충식 의원이자 교섭단체대표가 되겠다.

제가 나고 자란 고향, 이곳 세종시는 누구나 하나의 노력으로 완성된 도시가 아니다. 우리 시민 모두의 사랑과 애착으로 기틀을 다지고 뿌리내린 도시다. 이제는 40만 세종시민 모두가 꿈을 꾸고 함께 애향심을 가질 수 있는 세종시를 만들고 싶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격려와 관심 보내주시길 바란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영현 위원장



김충식 부위원장



김현옥 위원



이현정 위원



최원석 위원



제94회 정례회 제2차 회의 개최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2024년 11월 14일 제94회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제4회 추경예산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에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불용 예산과 인건비 부족분 등을 반영해, 기정액 대비 3억 7,648만 원 증액한 111억 4,181만 원으로 편성된 추경 예산안을 원안가결했으며, 「세종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세종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도 원안가결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의회운영위원회는 제94회 정례회 기간 중인 2024년 11월 26일 제3차 회의를 열어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심사를 통해 2025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121억 6천 854만 원 중 자치분권 의정활동 지원 예산 2억 원을 감액하고, 의회교실 운영 등 7개 사업에서 2억 원을 증액하여 수정가결했다.



김영현 위원장 및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은 ▲영상 송출 장비 교체 ▲의안 처리시스템 대응방안 검증 ▲청소년의회교실 확대 ▲의사진행 관련 기자재 구매 및 보수예산 ▲현안사업 집중투자 등의 사안에 대한 필요성을 제언했으며, “세심하고 차질 없는 의회 운영 지원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의견을 모았다.

‘의원 연구모임 등록 심의의 건’ 등 총 4개 안건 심사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2025년 2월 12일 제96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의원 연구모임 등록 심의의 건’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의회운영위원회는 「세종시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세종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을 원안가결했다.

또한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한 후, 미진한 사항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지적하며 신속한 개선을 당부했다.

이어서 진행된 의원 연구모임 등록 심의에서 운영위는 ▲국회세종의사당 시대 지역 인재 참여 연구모임 ▲상가 공실의 다각적 해법 찾기 위한 연구모임 ▲정주 외국인(다문화)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선진 정책 도입을 위한 연구모임 ▲세종시 친 보행자 환경조성을 위한 대중교통 개선 연구모임 등 총 5개의 연구모임 등록을 심사(승인)했다.

의원,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각 연구모임은 오는 2025년 11월 30일까지 자체 계획에 따라 간담회, 현장방문 등 활발한 연구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영현 위원장은 “각 연구모임이 활발하게 활동하여 시민들을 위한 정책 및 조례 입안 등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길 기대한다”라고 당부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현미 위원장



김영현 부위원장



김충식 위원



상병현 위원



여미전 위원



이순열 위원



홍나영 위원



2025년도 새해 첫 상임위원회 의사일정 시작

행정복지위원회는 제96회 임시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지난 2025년 2월 4일부터 7일까지 총 4차례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결의안 1건을 심사하고,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했다.

2025년 2월 4일 제1차 회의에서는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촉구 결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됐으며, 해당 결의안은 같은 날 열린 제1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이어진 제2~4차 회의에서 행정복지위원들은 집행부로부터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고 올해의 정책 기조와 세부 계획을 점검하는 한편, 내실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2025년 2월 7일 제4차 회의를 끝으로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문화체육관광국 등 17개 부서의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를 완료했다.



제주도의회와 자치분권 발전방안 등 공동 모색

2025년 2월 6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를 방문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박호형)는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와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정책동향 및 의정지원 강화 방안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제주도의회에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및 자문위원 등 총 19명이 세종시의회에 방문했다.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김현미 위원장 등 위원 6명, 정책지원관 등 총 20명이 동참했다.

참석자들은 세종시의회-제주도의회 간 간담회를 개최하여 시정 및 도정 현안에 대응하는 정책 방안에 대해 공유하고, 시민 중심의 정책 개선 방안 마련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김현미 위원장은 “오늘 세종시에 방문해 주신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과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환영의 인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와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간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 관계를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보겠다고 강조했다.

제96회 임시회 상임위 의사일정 종료

행정복지위원회는 2025년 2월 10일 제5차 상임위원회 회의를 통해 조례안 22건과 동의안 등 기타안건 14건을 심사하고, 2건의 보고를 청취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 결과, 위원회는 상정된 조례안 22건 중 18건은 원안가결하고, 이 외 2건은 부결, 2건은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아울러, 기타 안건 14건은 모두 원안가결했다.

위원회에서 부결된 조례안은 「세종평생교육·정책 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위원회는 연구와 교육 기능의 통합 및 조정의 문제에 대해 더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한, 심도있는 심사 끝에 「세종특별자치시 새마을 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은 보류해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장애인단체연합회와의 간담회 실시

행정복지위원회는 2025년 2월 14일 세종시장장애인단체연합회와의 간담회를 실시하여, 장애인단체 현황과 정책제안 등을 청취하고 장애인 권익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세종시장장애인단체연합회 윤강일 회장은 보훈장애인회관 입주단체 공공요금 부족 등 어려운 상황을 토로하며, 운영비 확대 지원에 대해 제안하는 등 장애인 권익 보호를 위한 시의회와 집행부의 관심과 노력을 부탁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복지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복지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곳에 우선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재형 위원장



최원석 부위원장



김광운 위원



김학서 위원



김현옥 위원



김효숙 위원



안신일 위원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 심사

산업건설위원회는 제94회 정례회 기간 중인 2024년 11월 27일부터 8일간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 심사(제5~10차)를 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7억 9,729만 8천 원 감액된 3,301억 703만 4천 원 편성,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83억 6,275만 7천 원 증액된 7,013억 1,637만 7천 원 편성하여 제출됐다.

계수조정 결과 세입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가결했고, 세출예산은 '자동집하시설 탈취설비 개선' 등 22개 사업에서 증액했으며, '호수공원 도시관리계획(변경)' 등 26개 사업에서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했다.



농업 기반·지원시설 현장방문 실시

산업건설위원회는 2024년 12월 20일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 시설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며 2024년 마지막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김재형 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농업기술센터 내 위치한 농기계 임대사업소 본점, 로컬푸드공공지원센터, 세종형 스마트팜 등 주요 시설들을 시찰했다.

김재형 위원장은 “농업분야에 대한 의원님들의 관심이 많은 만큼 농업기술센터가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격려했다.

여성기업인들과의 간담회 개최

산업건설위원회는 2025년 1월 21일 시의회 청사 대회의실에서 행정복지위원회 여미전 의원과 함께 세종시 여성기업 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지난 제94회 정례회 당시 여미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 과정에서 여성 기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다음 임시회 때 다시 논의하기로 한 바, 해당 의견수렴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이날 논의 된 주요 내용은 ▲세종특별자치시 여성기업지원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계획 ▲제조·구매뿐만 아니라 용역·서비스 기업에 대한 지원(우대) ▲창업 이후 기업(7년 이상)을 위한 투자 등이다.

김재형 위원장은 “논의 과정에서 주신 다양한 의견은 적극 협력, 검토하여 여성기업인의 기업 운영에 실효성 있고 체감할 수 있는 조례로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96회 임시회 제3차 회의 개최, 조례안 등 33건 심사 의결

산업건설위원회는 2025년 2월 7일 제96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29건, 동의안 4건, 총 33건을 심사했다. 이 중 23건은 원안가결, 5건은 수정가결, 3건은 보류, 나머지 2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김재형 산업건설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는 시의 자족 기능 확보에 필요한 국가적 사업이지만, 도시개발 특별회계를 폐지하여 부족한 사업비를 마련하려는 것은 시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것과 다름없어 걱정이 앞선다. 앞으로 집행부는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성공적 결과로 시민들에게 보답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교육안전위원회



윤지성 위원장



이현정 부위원장



김동빈 위원



박란희 위원



유인호 위원



2025년도 세종시교육청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교육안전위원회는 2024년 11월 29일부터 12월 4일까지 제94회 정례회 제6~9차 회의를 개최하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했다.

이날 심사에서 교육안전위원회는 2025년도 세종시교육청 소관 세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가결했다.

교육청이 제출한 본예산안 세출규모는 전년도 대비 772억 4,086만 원(7%)이 증가한 1조 1,834억 2,194만 원이다. 교육안전위원회는 특별연수 운영 사업 등에서 33억 2,571만 원을 감액하고, 현장체험학습차량지원 등에서 2억 611만 5천 원 증액하였으며, 나머지 31억 1,959만 5천 원은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했다.



도담초와 119안전센터 대상 현장방문 실시

교육안전위원회는 2025년 1월 21일 관내 초등학교의 방학 중 성장지원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재난 발생 시 대응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도담초등학교와 2곳의 119안전센터(보람, 연서)를 차례로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에는 윤지성 위원장, 이현정 부위원장, 유인호 위원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도담초등학교의 방학 중 성장지원 프로그램 운영 전반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다양하게 마련된 프로그램을 참관했다. 아울러 급식실을 방문하여 중식 제공 현장을 살펴보고 직접 시식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보람동과 연서면에 위치한 2곳의 119안전센터에서는 재난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지역별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두 곳의 센터가 당면한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교육안전위원회는 ▲방학 중 프로그램의 질적 제고를 위한 학교와 교육청의 지속적인 관심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중식 제공을 위한 현실적인 지원 확대 ▲화재·안전사고 취약 지점에 대한 철저한 사전 예방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2025년 주요업무 계획 살피며 다양한 정책 제안

교육안전위원회는 제96회 임시회를 맞아, 2024년 2월 6~7일 양일간 세종시교육청,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의 2025년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했다.

윤지성 위원장은 “읍면지역 학교의 내실 있는 특색 교육과정 운영과 내용의 다변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현정 부위원장은 “미인가 대안 학교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취지에 적합한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해 줄 것”을 제언했다.

김동빈 의원은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이주 배경 학부모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박란희 의원은 “지하수 음용 학교 3곳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향후 상수도로 교체할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유인호 의원은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초등학교 입학 학생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꾸준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윤지성 위원장은 “그동안 교육청, 시민안전실, 소방본부가 보여준 성과와 행정 개선은 밤늦게까지 업무에 매진하는 직원분들의 노고임을 잘 알고 있다”라며 감사와 격려를 전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현정 위원장



최원석 부위원장



김동빈 위원



김영현 위원



김재형 위원



김충식 위원



김현미 위원



상병현 위원



윤지성 위원



이순열 위원



2025년도 교육청 예산안 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4년 12월 제94회 정례회 기간 중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

2025년도 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772억 원 증가한 총 1조 1,834억 원으로, 세종시교육청은 경기 둔화와 세입 감소로 인한 재정 불안정 속에서 재정 건전성 확보와 사업 구조조정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위원들은 교육청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고려해 불필요한 비용 절감과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위 심사 결과, 수학체험센터운영 시설관리 사업 등 314건에서 33억 3천 4백6만 원을 감액하고 수학체험센터운영 기본운영 등 22건에서 33억 3천 4백6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했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2025년도 예산안 재심사 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는 심사와 재심사를 거쳐 확정했다.

제9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재심사가 요청됨에 따라, 위원회는 2024년 12월 20일 제11차 회의를 통해 추가 심사를 진행하고 최종안을 확정했다.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총규모는 1조 9,818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3.98% 증가한 수치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유지됐다. 세출예산은 정책 만족도 조사 컨설팅 등 58개 사업에서 145억 9,426만 원을 삭감한 반면, 적십자봉사회 자원봉사활동 등 26개 사업에 동일 금액을 증액했다. 특별회계에서는 자치분권특별회계 전입금 2억 1,385만 원을 삭감했으며, 조천 들꽃정원 조성사업 등 67개 사업에서 36억 8,663만 원을 감축했다. 동시에 생활불편 해소사업 등 27개 사업에 34억 7,278만 원을 증액하며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현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재심사를 통해 예산 배분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더욱 강화했다”며 필수적 사업에 집중해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2027 하계세계 대학경기대회 추진 특별위원회



김현미 위원장



안신일 부위원장



김동빈 위원



김영현 위원



김재형 위원



김충식 위원



김학서 위원



박란희 위원



여미진 위원



최원석 위원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보고 청취 위한 제5차 회의 개최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추진 특별위원회는 2025년 1월 22일 의회 청사에서 제5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준비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주요 내용을 질의·답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김현미 위원장, 안신일 부위원장을 비롯하여 김동빈, 김영현, 김충식, 김학서, 여미진, 최원석 의원 등 특별위원회 위원, 방병웅 체육진흥과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먼저, 방병웅 체육진흥과장으로부터 경기장 확보, 선수촌 조성, 대회 홍보 등 대회 준비 현황과 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했다.

이에 김현미 위원장은 “선수촌 이외에 보조경기장 등 훈련이 가능한 시설이 있어야 세종시 내에서 자본이 순환될 수 있을 것”이라며, “선수촌 조성 과 연계해 훈련이 가능한 보조경기장 확보 방안에 대해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신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 차원의 현장 방문을 통한 홍보 효과를 강조하며 “LH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특위 차원의 현장 방문을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으며, 최원석 의원은 “추후 시 차원에서 종합체육시설 건립을 위한 긍정적 요인과 근거를 발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학서 의원은 학교 체육관, 컨벤션 센터 등 대체 경기장에 대한 방안이 포함된 종합계획 마련 후 특별위원회에 보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김현미 위원장은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가 차질 없이 추진 되도록 특별위원회와 시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며, 원만한 진행을 위해 집행부와 시의회 간 소통 또한 당부했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박란희 위원장



안신일 부위원장



김재형 위원



김충식 위원



김현미 위원



김효숙 위원



여미전 위원



유인호 위원



윤지성 위원



이순열 위원



제2차 회의 개최해 핵심 과제 점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2024년 11월 8일 제2차 회의를 열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주요 과제와 향후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행정수도 특위 위원들은 집행부로부터 관련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세종시가 진정한 행정수도로 완성되기 위한 핵심 과제들을 점검했다.

박란희 위원장은 “세종시가 진정한 행정수도로 자리 잡기 위해 국회세종 의사당, 대통령 제2집무실, 세종지방법원의 조속한 설치가 필수적”이라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공감대 형성과 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국회의원과의 간담회 개최

행정수도 완성 특별위원회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24년 12월 20일 강준현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2025년 1월 15일 김종민 국회의원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특위는 강준현 국회의원과 간담회에서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추진 상황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 특히, 국가상징구역 내 주요 시설들의 단계적 건립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어 김종민 국회의원과 간담회에서는 진정한 행정수도 구현을 위한 핵심과제로서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이전의 당위성을 재확인하고, 혁신적 추진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전개했다.

이같은 간담회를 통해 참석자들은 “특위와 국회의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시대적 과제 실현을 위한 논의를 거듭하면 새로운 전환점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적극적 행보를 이어 나갈 의지를 전했다.

제9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이현정 의원**

고운동, 더불어민주당



저출생 예산 재구조화 및 선도적 보육 정책 촉구

이현정 의원은 “저출생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구조화하고 선도적으로 실효성 높은 보육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5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저출생 정책이 효과적이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일·가정 양립에 방점을 두고 저출생 대책을 재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명대 밑으로 떨어진 합계 출산율을 회복하고 유보(유치원·어린이집) 통합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정책 대안으로는 ▲저출생 관련 정책 별도 중점 관리 및 저출생 직결 예산 재구조화 ▲무상 보육 실현 등 선도적인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 추진 등이 제안됐다.

이 의원은 “우리 시가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직시하여 저출생 예산 확대를 위한 노력과 함께 유보 통합 등 정책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보육 지원 정책을 수립하는 데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9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세종시 학생 행동평가척도검사 결과 18.4%, 고위험 및 모니터링 학생으로 조사

**이순열 의원**

도담동·어진동, 더불어민주당



이순열 의원은 코로나 이후 점점 심각해지는 학생 정서 위기 해결을 위해 세종시와 교육청이 협업하여 입시 공부로 한정된 청소년 교육환경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세종시 교육청에서 2024년 4월부터 6월까지 중·고생 행동평가척도검사(YSR, Youth Self Report)를 실시한 결과 18.4%가 고위험 및 모니터링 대상 학생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교육부 조사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이 의원은 “세종시 청소년 정서 위기에 대해서 안심할 수 없으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이 의원은 청소년들이 문제 풀이 중심의 입시 공부에서 탈피하여 지역 생태환경, 문화예술, 체육, 인문 중심의 교육을 폭넓게 접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세종시와 교육청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세종시가 선제적으로 나서서 획일화된 서열화 교육을 탈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지역 문화예술, 체육, 환경단체와 학교가 융합교육을 통해 청소년에게 다양한 기회의 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병헌 의원

아름동, 더불어민주당



‘오가냥뜰 체육공원’ 추진 관련 미숙한 행정 질타

상병헌 의원은 “세종시의 미숙한 행정으로 오가냥뜰 체육공원 추진이 발목잡혔다”고 질타했다.

상 의원은 “2024년 4월 진행된 오가냥뜰 체육시설 설치 중앙투자심사 결과 반려 처리된 것은 세종시의 소극적이고 부실한 자료 준비로 인한 결과”라며 “지난해 오가냥뜰 체육공원 전환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실시했고, 이를 바탕으로 올해 4월 행정안전부에 중앙재정투자심사를 의뢰하게 됐으나, 세종시의 기초적인 행정 실수로 반려됐다”며 그동안 체육공원 추진을 위해 노력한 시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2027 하계세계대학 경기대회에 따른 체육에 대한 높은 관심과 전국체육대회 유치를 위해서도 오가냥뜰공원의 체육공원 전환과 체육시설의 확충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상병헌 의원은 유사한 행정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행정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사전절차 준수 ▲6생활권 증가인구 및 변화된 체육시설 수요 반영 ▲세종충대병원 증설계획에 따른 체육시설 이전 재배치가 불가피한 점 ▲국제규격의 체육시설이 부족한 점 등을 제안했다.



김광운 의원

조치원읍, 국민의힘



시 재정 상황 개선을 위한 수익사업 발굴 제안

김광운 의원은 시 재정 상황 개선을 위한 수익사업 발굴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했다.

김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최근 의회와 집행부 간 갈등에 대해 시민들께서 우려하며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문제는 모두 ‘한정된 예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세종시는 최근 국세 수입 부족 등으로 인해 보통교부세가 감액되고 있다. 향후 지방세 수입 전망 역시 밝아 보이지 않아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갈수록 줄어들드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학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연구용역의 추진과 다양한 시민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시민 공모 등의 방안을 제안했으며, 세종시 재정자립도를 개선하고, 세종시 발전과 세종시민 편의를 위한 정책 추진을 위해 다양한 신규 수익사업을 개발하여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도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주 여건이 개선되어야 하고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며, “세종시 발전과 세종시민 편의를 위한 시 재정을 개선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협치와 소통을 보일 수 있기를 기대하겠다”라며 시 집행부와 의회의 협력을 촉구했다.

제9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김현옥 의원**

새롬동, 더불어민주당



세종시 크린넷 문제, 누구의 책임인가?

김현옥 의원은 생활편의와 환경적 이점을 목표로 도입되었지만, 장기적인 계획 부재와 책임소재의 불확실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세종시 크린넷의 운영 및 관리 개선을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이날 김현옥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사 초기 단계부터 크린넷 도입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책임지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했다”며, 이로 인해 시민들이 큰 불편과 부담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복청과 LH가 크린넷 계획 및 설치 과정에서의 책임을 인정하고, 세종시와 협력하여 주민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현옥 의원은 “행복청과 LH가 책임을 회피하는 동안, 그 피해는 오롯이 시민들이 떠안아야 할 몫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 세종시와 행복청, LH가 협력하여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크린넷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제9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박란희 의원**

다정동, 더불어민주당



청소년 활동 공간 확충 및 안전한 환경 조성 촉구

박란희 의원은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창의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활동 공간의 확충과 안전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박란희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 규정된 필수 청소년 활동 공간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다”며, “현재 청소년문화의 집 3개소(조치원, 새롬동, 고운동)와 자유공간 2개소(보람동, 반곡동)만 운영하고 있어, 17개 광역시도 중 가장 낮은 설치율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의원은 청소년 1인당 시설 이용 가능 인구수를 타 시도와 비교해, 세종시의 경우 1개 시설당 약 2만 명 이상의 청소년이 이용해야 하는 현실을 꼬집으며 “청소년 시설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청소년들의 안전한 활동을 보장하는 것은 단순히 청소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안전한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안신일 의원

장군면·한솔동, 더불어민주당



서울-세종고속도로 개통 대비 IC 설치 등 대응 시급

안신일 의원은 2년여 앞으로 다가온 서울-세종 고속도로 개통에 대비해 첫마을 IC 설치를 비롯한 인구·소비 유입 방안 등 실질적인 점검 및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국가적 대혼란의 시기를 벗어나 ‘한강에서 금강으로 서울에서 세종으로’ 새 시대의 물꼬를 트길 기대하며 세종시가 균형 발전을 위한 희망의 씨앗을 다시 심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이 막바지에 달한 지금도 첫마을 하이패스 IC 설치 등 교통 편의 증진은 물론, 수도권 인구 및 소비를 유입할 수 있는 정책적 대응 또한 미흡하다는 게 안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정책 대안으로 ▲첫마을 하이패스 IC 설치를 위한 유관기관(행복청·LH)과 사업비 경감 및 예산 확보 방안 마련 ▲인구 및 소비 유출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교육·의료·문화시설 확충 ▲장군면 등 인근 지역과 연계한 발전 방안 수립을 제시했다.

안 의원은 “행정수도 세종시대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만큼 제도약의 ‘골든타임’을 꼭 붙잡기 위해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원석 의원

도담동, 국민의힘



지역경제 침체를 고려해 교통유발부담금 확대, 유예해야

최원석 의원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확대를 유예해 줄 것’을 제안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매년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세종시는 지난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부과를 확대해 왔다.

최 의원은 “지속되는 상가 공실과 경기침체로 소상공인들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 부담금 부과 확대는 시기상조”라며, 세종시 지역경제 상황을 고려해 부담금 부과를 유예해 줄 것을 제안했다.

또한 “시설 규모에 따른 획일화된 부담금 부과와 정확하지 않은 실태조사, 교통혼잡 완화 효과 미비 등 사회 곳곳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제도”라며, “더욱 정확한 실태조사와 단위부담금 조정이 이루어진 이후 부과를 조치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최원석 의원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확대 유예 ▲단위부담금 재조정 및 경감방안 안내 ▲조례 개정을 위한 의회의 협조를 제안하며, 부담금 수입에 따른 재원을 교통사업 목적에 맞게 집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김영현 의원**

반곡동, 더불어민주당



세종시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각적 난임 지원 정책 마련해야

김영현 의원은 “저출생 문제 해결과 난임 부부의 의료 선택권 보장을 위해 한방 난임 치료 지원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난임 부부들이 다양한 치료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이를 위해 세종시가 한방 난임 치료 지원 사업 등 다각적인 난임 지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는 현실적인 난임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자 2024년 2월 「모자보건법」을 개정하여 난임 치료 시술비 지원에 한방 의료를 포함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전국 5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방 난임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의 성과도 꾸준히 축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전국적으로 한방 난임 치료 지원이 확대되는 가운데, 세종시만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며, “난임 부부들이 보다 다양한 의료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한방과 양방이 협업하여 난임 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종시가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제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김현미 의원**

소담동, 더불어민주당



지역사회기반 세종형 암 사후돌봄 (애프터케어) 정책 필요하다!

김현미 의원은 국민 사망원인 1위인 암에 대해서 의료분야에만 의지하지 말고 세종시가 나서서 암 환자와 암 생존자의 사회복귀, 자녀 돌봄 지원 등 지역사회기반 세종형 암 사후돌봄(애프터케어) 정책을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암관리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암 생존자들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세종시의 관련 사업은 여전히 매우 부족하다”며 비판했다.

김현미 의원은 2017년도부터 권역별로 개소한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가 전국 17개 광역 단위 시도 중 유일하게 세종시만 없는 점을 들어, 센터를 단독으로 개소하기 어려우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사례처럼 대전권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를 세종시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세종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모자보건법」상 암 환자 가임력 보존 지원을 바탕으로 한 조례제정이나 국공립어린이집에 암 생존자 자녀 우선 입소 등 보육조례 개정을 통해 임신이 어려운 암 환자나 영유아 보육이 절실한 암 생존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문화체육, 경제, 보건 등 세종시 지역사회 모든 분야를 연계하여 암 생존자 지원정책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효숙 의원

나성동, 더불어민주당



세종시 상가 공실 해결, 2025년을 원년으로!

김효숙 의원은 “올해만큼은 실효적인 정책 설계와 적극적인 예산 투입으로 상가 공실 해소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출범 13년 차 세종시는 인구 39만의 행정수도로 성장했지만, 상가 공실률이 전국 1위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 해법을 제안했지만, 올해 시 주요업무계획을 확인하니 대책은 전무하고 상가공실박람회 성과 홍보만 언급돼 있다. 박람회 후속 조치는 물론 계획조차 부재하고 대규모 공실 해결 노력도 담보상태”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김 의원은 경기침체와 인구 정체 등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하며, ▲대형 공실 상가를 활용한 ‘세종형 창업지구’ 조성 ▲소극장을 포함한 공연·전시 공간으로 공실 상가 활용토록 지원하는 방안 ▲경제부시장 또는 적절한 실·국장이 리더십을 발휘하고 관련 부서가 모두 참여하는 전담 TF팀 구성과 같은 총 세 가지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끝으로 김효숙 의원은 간담회 개최와 연구모임 등으로 의회 차원의 지원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시는 2025년을 상가 공실 문제 해결의 원년으로 삼아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유인호 의원

보람동, 더불어민주당



공동주택 관리 사각지대 해소 위한 적극 행정 촉구

유인호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의 다양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시민 눈높이에 맞는 적극 행정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한 공동주택 상가 건물의 지반 침하에 따른 상가 건물과 보도블록 간 틈 발생 및 내부 균열 문제를 제기하며, “이곳이 사유지이지만, 보행로와 맞닿아 있고 공동주택의 특성상 방치할 경우 심각한 피해도 예견될 수 있는 만큼 사회적 안전을 저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의무 사항으로 규정된 공동주택 안전관리 종합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2012년 조례 제정 이후 단 한 차례도 수립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공동주택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 사안별로 접근 방법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싶다. 공동주택 관련 법률 자문과 같이 시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한 시정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적극 행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제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홍나영 의원**

비례대표, 국민의힘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및 답례품 관리 강화 촉구

홍나영 의원은 세종시 고향사랑기부제의 운용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제언했다.

홍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소멸 위기와 지역 간 발전 격차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입된 제도로, 기부를 통해 지역 재원을 확보하고 답례품 제공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제도”라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홍 의원은 “물론 기부금이 증가하는 성과가 있었지만, 세종시 고향사랑기부제 운용에서 개선이 필요한 점도 존재한다”며, 특히 답례품 선정 및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대표적인 사례로 원산지 거짓 표시로 논란이 된 ‘한글빵’ 사건을 언급하며 이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답례품 선정 및 품질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홍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재정 확충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운영되어야 한다”며, 세종시가 제도의 취지를 살려 기부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제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김재형 의원**

고운동,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에 맥도날드가 생겼으면 정말 좋겠네!

김재형 의원은 “맥도날드를 유치해 지역 내 외식 문화 활성화의 출발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맥도날드 유치 필요성을 절감하고 본사에 연락했는데 “작년 7월 세종시에서 관련 논의를 위해 방문했지만 이후 진전이 없었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당시 시에서 제공한 자료를 확인해 보니 홍보 자료 수준에 그쳤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아울러 세종시는 입점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도시이므로, 정말로 맥도날드 유치를 목표로 한다면 단순 홍보를 넘어 규제 완화, 외식 문화 및 상권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외식 브랜드들이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과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구 구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주민들이 대부분인 세종에서, 익숙한 외식 문화와 생활 환경이 마련되지 않으면 인구 정체와 도시 발전이 지체되는 악순환이 지속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끝으로 “맥도날드 유치는 단순한 글로벌 프랜차이즈의 입점을 넘어 시가 도시다운 면모를 갖추는 과정의 일환으로 지역의 외식 문화 및 상권 활성화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세종시의 관심을 촉구했다.

제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여미전 의원

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민관협력 배달앱과 지역화폐 ‘여민전’의 만남! 지역경제 살리는 해법

여미전 의원은 세종시의 민관협력 배달앱 ‘뽕겨요’가 단순한 배달 서비스에 그치지 않고, 지역 경제 활성화의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차별화된 혜택과 서비스 개선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여 의원은 “세종시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는 저렴한 수수료와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민관협력 배달 플랫폼을 도입하고 있지만 인지도 부족, 가맹점 확보의 어려움, 운영 비용 부담 등의 문제로 대형 배달앱과 경쟁에서 밀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여 의원은 세종시의 민관협력 배달앱 ‘뽕겨요’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차별화된 서비스와 전략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경기도의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 사례를 언급하며 “아동 급식카드와 연계하여 급식지원대상 아동들이 비대면 식사를 주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 플랫폼과 차별화된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다”며 ‘뽕겨요’의 접근성을 높이고, 공공서비스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제94회 정례회 5차 본회의

민간위탁 운영 및 관리 제도 개선 촉구



상병헌 의원

아름동, 더불어민주당



상병헌 의원은 세종시장을 상대로 민간위탁의 운영과 관리 제도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긴급현안질문을 진행했다.

2024년 10월 16일 세종시의회는 2025년부터 2년간 약 16억 7,700만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인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사업을 현 수탁기관이 재계약하는 사항에 대해 심의하는 과정에서 동의안을 부결시킨 바 있다.

상병헌 의원은 제93회 임시회에서 세종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이 부결된 원인으로 ▲성과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 결여 ▲평가지표의 미흡한 변별력 ▲기본적인 절차 위반 등이 확인되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면, 위탁 만료일 90일 전까지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 집행부는 이를 지키지 않은 채 안건을 상정했다.

아울러 현행 조례에서도 성과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종시는 이를 전혀 활용하지 않고 내부적으로만 평가를 진행하고 했다.

끝으로 상병헌 의원은 “민간위탁은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투명한 관리 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세종시가 지금까지도 민간위탁 운영 전반을 되돌아보고, 철저한 성과평가와 관리 감독을 통해 신뢰받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

제9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김효숙 의원

나성동, 더불어민주당



어울링 민원 폭주와 늑장대응, 그 이유는?

김효숙 의원은 세종시 공영자전거 어울링의 민원 폭주 원인과 운영 실태를 짚어보고, 한 단계 더 발전된 어울링으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김효숙 의원은 최민호 시장과 도순구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에게 현안과 문제점에 대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하며 어울링 시스템 운영 및 관리체계를 진단했다.

이어 시민불편 대응 및 조치사항을 점검했으며, 제품 성능과 조달 방식의 차이 등의 점검을 제안하며 어울링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란희 의원

다정동, 더불어민주당



로컬푸드의 가치 훼손 안 돼, 싱싱장터 운영 개선해야

박란희 의원은 신선·안전·상생·환경이라는 로컬푸드 가치에 맞는 농산물 공급 체계와 관련해 시정질문에 나섰다.

박 의원은 안전한 농축산물 공급 방안, 중·소농들을 위한 기반 마련, 싱싱장터 내 시설 보수 및 직원 처우 개선 등 농산물 품질개선을 위해 다양한 대안을 제안했다.

더불어 “세종시에는 현재 입주했거나 입주할 많은 정부기관 및 연구기관이 있다”며, “충분한 시장이 확보되어 있으니, 지역 농민들의 판로확보를 위한 시장님의 역량을 기대한다”며 시정질문을 마무리했다.

제9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김현옥 의원

새롬동, 더불어민주당



세종시 축제 및 관광 정책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김현옥 의원은 축제와 관광 정책의 재검토를 통해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세종시만의 특색을 강화할 수 있는 중장기적 비전 제시 등 내실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김현옥 의원은 김려수 문화체육관광국장과 김하균 행정부시장을 상대로 “혁신적이고 차별화된 축제 콘텐츠개발이 필요하다”며 체류형 관광을 위한 관광 기반 시설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관광 기념품 활성화와 관광지의 다각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전하며 “예산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차별화된 콘텐츠로 세종시만의 매력을 확립해야 한다”고 정책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아빠의 낡은 자전거

김은경(세종시 아름동)

아빠의 직업은 집집마다 우편물을 배달하는 집배원이셨다. 늘 무거운 행낭을 메고 자전거를 타며 동네 구석구석까지 회로애락을 전달하셨다. 내가 초등학교 2학년이던 어느 날,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우연히 배달을 마치고 퇴근하시는 아빠를 만났다. 아빠의 권유로 자전거 뒤쪽에 앉아 집까지 타고 왔다. 아빠의 허리를 짊 붙잡고 바람을 피웠지만, 덜컹거리는 자전거 뒷자리가 무서워 눈을 꼭 감았다. 온종일 자전거를 타서인지 몰라도 아빠의 페달 밟는 소리가 왠지 힘에 겹게 느껴졌다.

하루는 빙판 위를 달리다 자전거가 넘어져 아빠의 무릎에서 피가 많이 나고 바지가 찢어진 채로 집에 오셨다. 엄마가 어떻게 되었냐고 걱정스럽게 물으시자 별일도 아닌데 뭘 그리 야단법석이냐고 오히려 반문하시던 일이 생각난다. 아빠의 낡은 자전거는 우리 다섯 식구의 생계 수단이었고, 없어선 안 될 운송 수단이었다. 요즘도 우편물을 가득 싣고 오토바이를 타고 거리를 누비는 집배원을 볼 때마다, 자전거를 타고 편지를 배달하시던 아빠가 생각한다.

아빠가 돌아가신 지 십여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빛바랜 사진 속에 남아 있는 아빠를 생각하면 언제나 그립고 애잔하다. 철없던 시절엔 아빠의 직업이 선생님과 같이 남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부끄럽게 생각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누구보다 성실하게 가정을 지켜내신 아빠의 땀과 노고를 생각하면 잠시나마 그런 생각을 했던 내가 한심하기 그지없다. 이젠 누구에게나 자랑스럽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



의정주요뉴스

설 명절 맞아 전통시장 장보기 나서

2025.01.24.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025년 1월 24일 시장 상인들과 소통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조치원 세종전통시장을 방문하였다.

이날 임채성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조치원 세종전통시장을 방문해 시장 상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전통시장 상품을 구매하는 등 명절 전 덕담을 주고받으며 시장경제 활성화에 동참했다.

임채성 의장은 “전통시장은 지역 경제의 중심이자 우리 고유의 정서를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전통시장을 방문해 장을 보며 풍요롭고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몽골 자브항 광역·기초 의회 대표단 접견

2025.02.12.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025년 2월 12일 의정실에서 몽골 자브항 아이막/숨 시민대표회의(의회) 대표단 10여 명을 접견했다. 몽골 자브항 아이막/숨* 시민대표회의 의회공무원으로 구성된 대표단은 한담 이후 세종시의회 본회의장을 둘러보고 전자회의시스템 등 운영 방식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 자브항은 몽골 21개 행정구역 중 하나, 아이막은 한국의 도도, 숨은 군도에 해당

대표단은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안을 공유하고 양 기관의 우호 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뜻깊은 자리였다. 이 자리를 계기로 향후 세종시의회 대표단을 초청하고 싶다”고 말했다.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은 “우리 의회도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도시인 몽골 자브항을 방문해 더 넓고 깊은 협력의 기회가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화답하며 교류의 의지를 전했다.

‘행정수도 세종 이전 토론회’ 개최 환영

2025.02.18.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025년 2월 1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 ‘행정수도 세종 이전의 추진방안과 과제’ 토론회 개최를 환영했다. 토론회는 행정 비효율 문제와 인구의 수도권 집중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부작용의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강준현, 김영배 국회의원 주최로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과 김영현, 김재형, 김현미, 안신일, 유인호, 이순열 의원을 비롯한 의회사무처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

들은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의 ‘노무현의 꿈, 대통령실과 세종시의 미래’라는 주제 발제 이후 현장 토론에서 질의응답을 이어가며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세종 이전이 미치는 영향과 자생적 모델 추구에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세종시의회는 앞으로도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논의에 적극 참여하며,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 함께 노력할 전망이다.



입법정보

72

I 생활법령

76

II 주요입법동향

80

III 법령해석사례

82

IV 최근시행법령

84

V 타 지자체 최근 제개정 자치법규



I 생활법령

사례 01

충간소음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까요?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솔로몬의 재판)

양두리시에 있는 킹스빌라 303호에 거주하고 있는 박현우씨. 몇 달 전, 킹스빌라 203호에 유은성씨가 이사오게 되었습니다. 어린 자녀가 있는 박현우씨의 집은 부득이하게 충간소음이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현우씨가 유은성씨에게 여러 차례 사과하고 어린 자녀에게 주의를 주었으나, 유은성씨는 조그만 소리에도 303호 박현우씨에게 올라와 거센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현우씨와 이웃들은 새벽에 벽 또는 천장이 울리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와 같은 소리는 새벽마다 매일 지속되었고 이웃들은 아랫집 203호 거주자인 유은성씨가 고의적으로 천장 및 벽을 망치로 치는 소리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은성씨는 이웃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방문해도 출입을 거부하면서 문을 열어주지 않고, 대화를 시도하는 이웃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결국 검찰은 유은성씨가 박현우씨를 비롯한 주변 이웃들에게 반복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소리를 도달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게 되었는데, 과연 다음 중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① 은성:

위층에서 자꾸 아이가 쿵쿵거리며 뛰어다니길래, 내가 충간소음으로 얼마나 고통받는지 똑같이 느껴보라고 벽과 천장을 망치로 쿵쿵 쳤을 뿐이에요. 제가 오죽 스트레스에 시달렸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거 조금 소리 났다고, 스토킹 범죄와 다를 바가 없단가요? 피해자는 저라구요!

② 현우:

제 아이가 아직 어리다 보니, 가끔씩 집안에서 뛰어다니면서 충간소음을 야기한 점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차례 사과드렸고요. 그렇다고 이렇게 남들 다 자는 새벽시간에, 매일 고의적으로 천장을 망치로 쿵쿵 치다니요. 저희 가족을 비롯한 이웃들이 얼마나 불안감과 공포감을 느끼는지 아십니까? 스토킹은 고의적으로 소리나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해서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느끼게 하면 스토킹입니다!



평결

정답은 2번.

현우: “제 아이가 아직 어리다 보니, 가끔씩 집안에서 뛰다니면서 층간소음을 야기한 점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
도 여러 차례 사과드렸고요. 그렇다고 이렇게 남들 다 자는 새벽시간에, 매일 고의적으로 천장을 망치로 쿵쿵
치다니요. 저희 가족을 비롯한 이웃들이 얼마나 불안감과 공포감을 느끼는지 아십니까? 스토킹이란 게, 별게
아닙니다. 고의적으로 소리나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해서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느끼게 하면 스토킹이죠!”
입니다.

위 사례는 고의적으로 야기하는 반복적인 층간소음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입니다.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는 스토킹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상대방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글·말·부
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에서는
위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설
명하였습니다.

나. 물론 대법원은 이웃 간 소음 등으로 인한 분쟁과정에서 고의적 층간소음 행위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곧
바로 정당한 이유 없이 객관적·일반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단
정할 수는 없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사례에서 유은성씨의 구체적 행위 및 경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유은성씨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의 정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한
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유은성씨의 행위는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지속적·반복적 행위에 해
당하여 스토킹범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평결일 : 2024년 12월 1일

참조판례 :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10313 판결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례 02

주택 대문 바로 앞에 차량을 주차하여 차량을 주차장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한 것이 강요죄의 폭행에 해당 되나요?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솔로몬의 재판)

길부자씨가 소유한 A도로는 U자 모양의 도로로서 도로를 따라 양측에 30여 개의 대지와 지상 주택이 있습니다. 내집앞씨는 A도로에 접한 주택을 소유하며 도로 위에 구획된 주차선이나 자신의 주택 내부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해 왔습니다.

길부자씨는 이 도로 주변 주택소유자들에게 도로의 지분을 매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주택소유자들 중 내집앞씨는 이를 계속 거부한 채 길부자씨의 도로 일부를 계속 자신의 주차 공간으로 사용했습니다.

이에 화가 난 길부자씨는 내집앞씨 주택 대문 앞에 길부자씨의 차량을 주차해 내집앞씨가 내집앞씨의 주택 내부에 있는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계속 피해를 받던 내집앞씨는 길부자씨를 강요죄로 고소하게 되는데요.

과연 길부자씨는 강요죄로 처벌을 받게 될까요?



① 내집앞:

길부자씨 때문에 제 집의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었어요. 남의 집 앞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해서 집 주인의 차량이 주차장에 출입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것은 유형력의 행사라고 생각하므로 강요죄로 처벌 받아야 합니다.

② 길부자:

억울합니다. 내집앞씨가 도로의 지분 매입도 거부한 채 계속해서 제 도로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내집앞씨의 집 대문 앞을 제 차로 막았지만, 내집앞씨 차량이 주차장에 출입할 수 없도록 방해했을 뿐입니다. 어떠한 물리적 접촉도 없었는데 강요죄로 처벌받는 건 말도 안 됩니다.

평결

정답은 2번.

길부자: “억울합니다. 내집앞씨가 도로의 지분 매입도 거부한 채 계속해서 제 도로를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내집앞씨의 집 대문 앞을 제 차로 막았지만, 내집앞씨 차량이 주차장에 출입할 수 없도록 방해했을 뿐이고 어떠한 물리적 접촉도 없었는데 강요죄로 처벌받는 건 말도 안 돼요”입니다.

위 사례는 주택 대문 바로 앞에 차량을 주차하여 다른 사람의 차량을 주차장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한 것이 형법 제324조제1항에 따른 강요죄의 폭행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가.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에서 폭행은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하며, 반드시 사람의 신체에 대한 것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사람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강요죄의 폭행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한 의도와 방법,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근접성, 유형력이 행사된 객체와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나. 피고인(도로 주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할 의도로 공소외인 차량을 피해자 주택 대문 앞에 주차하였으나, 주차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물리적 접촉이 있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주택 외부에 있던 피해자 차량을 주택 내부의 주차장에 출입시키지 못하는 불편이 발생하였으나, 피해자는 차량을 용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나. 피고인의 주차행위 과정에서 실질적인 폭력행위나 협박 등이 없었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차량 운행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길부자씨가 강요죄로 처벌받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결일 : 2024년 11월 16일

참조판례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8도1346 판결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II 주요입법동향

01 | 최근공포법령

0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공포 '25. 1. 7.
법률 제20634호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등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피해자의 의사나 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02

예금자보호법

공포 '25. 1. 21.
법률 제20717호

우리나라 경제규모의 성장과 예금자산의 증가를 고려하여, 2001년 이후 5천 만원으로 유지되어 온 예금보험금의 지급 한도액을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0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공포 '25. 1. 31.
법률 제20746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립 박물관·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국립 박물관·미술관의 설립·운영을 내실화하는 한편,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 박물관·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체적으로 설립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02 | 최근 국회 본회의 통과

01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국토교통위원장

- 최근 도시권역 인구집중, 지방소멸위기 등의 사회 환경 변화로 인해 교통정책 패러다임이 단순 인프라 확충 등 양적 측면에서 지역 간 불균형 개선에 중심으로 하는 질적 측면으로 전환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도로 관련 최상위 법정계획인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 이러한 환경 변화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고,
- 도로유형별로 현행법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설치·운영 주체인 도로관리청과 「도로교통법」의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자가 상이한 경우가 있어 두 시설 간 연계성을 높이고 효율적·체계적 설치·관리를 위해 관련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국토교통부가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마을주민보호구간 사업의 경우 교통사고 사상자 수가 크게 감소하는 등 효과성이 입증되었고 사업을 확대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 이에 관련 규정을 신설·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02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 현행법은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운송 불이행 및 지연 등으로 항공교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피해구제 절차 및 처리계획(피해구제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규정하면서, 기상악화, 안전운항을 위한 정비로서 예견하지 못한 정비, 천재지변, 항공기 접속 관계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항공운송사업자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으나,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대한 증명뿐만 아니라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의 준수를 면책 요건을 강화하고,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의 고시를 의무화하는 것임(안 제6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8항).
- 또한, 항공운임 등 총액에 대한 정보제공 실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고, 점검결과를 소비자들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항공운송사업자 등의 허위 또는 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2조제7항·제8항 신설 및 제60조제12항).

03 | 최근 국회 접수 법안

0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 의원 등 10인

- 현행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금지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2019년 2,130건에서 2024년 12,253건으로 약 6배 증가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한 실정임. 또한 기술의 발달로 사이버불링 등 직장 내 괴롭힘 방식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직장 내 지위적 우위성을 넘어 수적 측면, 인적 속성, 직장 내 영향력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현행법 상 관계 등의 우위 규정을 직장에서의 지위에 관계없이 수적 측면, 인적 속성, 직장 내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미래지향적인 직장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2 후단 신설).

02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종면 의원 등 44인

-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은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을 되살리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경제 정책임. 이미 수많은 사례와 연구를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의 효능이 입증되었으며, 주민 실생활에서도 널리 쓰이고 있음. 실제로 2022년 기준 연간 발행 규모가 약 29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성장하였음.
- 그러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지원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할인율도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있음. 때문에 효능성이 검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결정권자의 결정에 따라서 발행규모와 할인율이 변화하는 등 불확실성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상공인·골목상권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지원을 의무화하는 한편, 매년 지방시대위원회가 두 자릿수 이상의 기준 할인율을 정하도록 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추가로 할인할 수 있도록 함.

04 | 최근입법예고

01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 의원 등 17인
(의견제출 '25. 2. 23.까지)

- 최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우울증을 앓던 40대 여교사가 오후 4시 30분 경 돌봄수업이 끝나고 이동하던 8세 여아를 시청각실로 유인해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대전광역시교육청과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는 우울증으로 인하여 질병 휴직을 신청했으나, 휴직 21일 만에 조기 복직 후, 불과 40일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됨.
- 학교의 장은 이러한 과정에서 교직원의 정신건강증진과 정신상의 장애에 대한 치유 지원 등 심리적 회복, 직무 수행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 등을 했어야 하나, 현행법상 건강증진기본계획과 건강증진 시행계획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학교의 장 등이 학생을 대상으로만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 교직원에 대한 건강증진계획은 부재한 실정임.
- 이에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학교의 장 등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국가의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학생 및 교직원 건강증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교직원이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교육활동보호센터를 통해 교직원의 정신상의 장애에 대한 치유 지원 등 심리적 회복을 지원받도록 조치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2조의3, 제7조의2, 제11조 및 제13조제2항 신설).

0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중오 의원 등 10인
(의견제출 '25. 2. 26.까지)

- 최근 치매 증상이 있는 70대 운전자가 인파가 밀집된 시장 안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기존에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고령 운전자의 적성검사가 실제 운전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또한, 현재 수시 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를 가진 기관이 그 개인정보를 경찰청장에게 통보하는 시기가 분기별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통보시기를 개인정보를 취득한 즉시 이루어지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수시 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를 가진 기관의 개인정보 통보 시기를 개인정보를 취득한 경우 지체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정기·수시 적성검사 시 모의도로주행 검사 및 인지기능검사가 포함되도록 하며,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운전자의 운전가능성 및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각 분야전문 및 교통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운전적성판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적성검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III 법령해석사례

사 례

질의(법제처-24-0944 / 회신일자 '25. 2. 7.)

- ① 윤년인 해의 2월 29일에 출생한 교육공무원의 정년퇴직일(「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1항 등 관련)

질의요지

-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1항 본문에서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만 62세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교육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에,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윤년*인 해의 2월 29일에 출생한 교육공무원의 당연퇴직일은 62세가 되는 해의 2월 28일인지, 아니면 8월 31일인지?

* 1년의 길이를 365.2425일로 정하는 역법체계인 그레고리력에서 여분의 하루인 2월 29일을 추가하여 1년 동안 날짜의 수가 366일이 되는 해를 말함

회 답

- 윤년인 해의 2월 29일에 출생한 교육공무원의 당연퇴직일은 62세가 되는 해의 2월 28일입니다.

이 유

- 먼저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2항에서는 정년에 이른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에,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에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교육공무원법」 제2조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해당하는 국립 또는 공립의 학교 등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등을 말하고,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2항에서 교육공무원의 정년으로 인한 퇴직시기를 실제 정년에 이른 날이 아니라 학년도를 중심으로 8월 31일이나 2월 말일과 같이 학기의 말일과 유사하게 정하고 있는 취지는 교육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는 교육이라는 직무의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수행과 교육공무원 인사에 관한 행정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유

- 또한 교육공무원의 정년 규정을 살펴보면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2항에서는 교원을 포함한 모든 교육공무원이 그 정년에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당연히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것을, 2004년 10월 15일 법률 제7223호로 일부개정된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2항에서 현행과 같이 그 정년에 달한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에, 9월부터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에 당연퇴직된다고 규정하여 학기의 말일을 각각 8월 31일과 2월 말일로 명확히 규정한 것 인바, 교육공무원의 당연퇴직일은 학기를 기준으로 정하도록 한 것이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안 교육공무원의 당연퇴직일은 학기가 종료되는 날인 2월 28일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이 사안 교육공무원의 당연퇴직일은 62세가 되는 해의 2월 28일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법제처 정부입법지원센터 법령해석사례



IV 최근시행법령

0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25. 1. 3. 시행)

-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4일을 동물보호의 날로 정하고, 학대받은 동물의 보호조치 기간을 정할 때 동물보호센터의 장 등 관계자의 의견 청취를 거치도록 하며, 동물실험이 끝난 실험동물의 기증·분양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함.

0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25. 1. 21. 시행)

- 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으로 지정 또는 위촉하려는 사람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출제위원으로 지정 또는 위촉된 날부터 3년 동안 교육부장관의 승인 없이 사교육과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공정한 수학능력시험 출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03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5. 2. 7. 시행)

- 유치원, 특수학교, 초·중등학교·대학교의 기숙사·합숙소, 임시교실 등의 교육시설이 신설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해당 소방시설 설치 시 내진설계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며, 임시교실에 대해서는 구조 안전, 피난·방화·소방, 보건 등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0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5. 2. 14. 시행)

- 통신판매업자가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무료에서 유료 정기 결제로 전환되는 경우 그 증액 또는 전환이 이루어지기 전 일정 기간 내에 그 증액·전환의 일시, 변동 전후의 가격 등에 대하여 소비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온라인 인터페이스(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 등의 소프트웨어) 운영 시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금지행위를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0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25. 2. 21. 시행)

-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제도를 폐지하고, 임시운행허가증 부착 규정을 삭제하며, 인증기관으로부터 성능 및 품질을 인증받은 대체 부품에 대한 표현을 인증대체부품에서 품질인증부품으로 변경하고, 자동차등록을 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등에 대한 처벌기준을 상향하며,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정보통신기술·사이버보안 또는 소프트웨어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06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 '25. 2. 23. 시행)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면서 분할 사용 가능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확대하고,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현행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하면서 그 기간 중 유급휴가일을 최초 1일에서 최초 2일로 확대하며,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등의 경우 육아휴직을 최대 6개월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자녀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서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로 확대하며,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가산하도록 하는 등 일·가정 양립에 대한 지원을 확대·강화함.

V 타 지자체 최근 제개정 자치법규

01

가평군 고혈압·당뇨병 약제비 지원 조례 (제정, 시행 '25. 2. 5.)

제안이유

가평군민의 심·뇌혈관질환의 예방을 위해 고혈압 또는 당뇨병 치료를 위한 약제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지원내용의 방법에 관한 사항(제3조~제5조)
- 나. 약제비 지역화폐카드의 발급에 관한 사항(제6조)
- 다. 약제비 지원대상자의 준수사항과 지원중지, 환수에 관한 사항(제7조~제8조)

02

원주시 선배시민 지원 조례 (제정, 시행 '25. 2. 7.)

제안이유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들이 선배시민으로서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발휘하여 복지,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참여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제1조~제2조)
- 나. 선배시민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제4조)
- 다. 선배시민 지원사업과 홍보, 포상에 관한 사항(제5조~제8조)

03

광양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제정, 시행 '25. 2. 7.)

제안이유

현대인의 일상 대부분이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현실을 고려하여 다중이용시설, 신축공동주택, 대중교통 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권 보장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실내공기질 측정의 대상이 되는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제3조)
- 나.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실내공기질 측정에 관한 사항(제7조~제9조)
- 다. 실내공기질 결과보고 및 검사, 개선명령에 관한 사항(제10조~제12조)

04

익산시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 (제정, 시행 '25. 2. 12.)

제안이유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익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제1조~제3조)

나.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제4조)

다. 반려식물문화 실태조사와 식물, 원예 관련 홍보에 관한 사항(제5조~제6조)



세종시의회 2025년 상반기 회기 일정 안내

1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신정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월요일	30	31	

2월 (임시회)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3월 (임시회)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상주일
2	3 대체휴일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30	24 31	25	26	27	28	29

○ 제96회 임시회 : 2. 4. ~ 2. 14.(11일)
-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조례안 등

○ 제97회 임시회 : 3. 5. ~ 3. 19.(15일)
- 시정질문, 조례안 등

4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식목일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5월 (정례회)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근로자의날	2	3
4	5 석가탄신일 아침마당	6 대체휴일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6월 (정례회)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한글날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 : 4월(예정)
※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 기간 : 4. 5. ~ 4. 24.

○ 제98회 정례회 : 5. 20. ~ 6. 23.(35일)
- 행정사무감사,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
-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등

■ 본회의 예정일 ■ 위원회 예정일
※ 기본일정은 의정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SEJONG CITY COUNCIL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운영 미디어 채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시민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온라인 미디어 채널을 운영 중입니다.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을 통해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가 생중계되고 있으며, 유튜브에서는 각종 홍보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에서는 간편하고 빠르게 세종시의회 소식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많은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홈페이지

<https://council.sejong.go.kr/>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councilsejong>



유튜브

<https://www.youtube.com/세종특별자치시의회>



블로그

<https://blog.naver.com/sejongcitycouncil/223217463608>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sejongcouncil>

독자 투고 안내

계간 <세종의정>에서는 시민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시의회 방청 및 방문을 통해 느낀 점, 계간 <세종의정>이 진열된 사진과 함께 소식을 읽은 소감,
의회에 바라는 글, 이웃과 함께 나누고 싶은 따뜻한 이야기나 감동적인 사연 등을
보내주시면 소중히 하겠습니다.

- ☑ 증명사진 및 관련 사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보내주세요.
- ☑ 채택된 글에 대해서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 ☑ 원고분량: 200자 원고지 10매 내외

보내실 곳

우 편 (우)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사무처 2층
의정담당관 소식지 담당자 앞

전 화 044.300.7248

팩 스 044.300.7219

이메일 yjk78901@korea.kr

소식지 구독 신청

세종시의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소식지 구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구독을 원하시는 시민께서는 아래 경로로 구독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01 | 홈페이지 접속 <https://council.sejong.go.kr/>



02 | 홍보관



03 | 의회간행물



04 | 의회소식지 구독 신청



인터넷방송 보러가기
counciltv.sejong.go.kr

QR코드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만나보세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인터넷방송]을
볼 수 있습니다.

